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187호 【루계 제25330호】 주체105(2016)년 7월 5일 (화요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주조 외교대표들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것을 축하하여 그이께 론캄 인타부아리 주조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이스마일 아흐마드 무함마드 하싼 탈레스티나국가 특명전권대사가 꽃바구니를, 만쑤르 차보쉬 이란이슬람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축하편지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리는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들이 4일 해당 부문 일군에게 각각 전달되였다.

꽃바구니들의 댕기에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각하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 등의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에티오피아 아디스 아바바 청년협회에서 선물을 보내여왔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에티오피아 아디스 아바바청년협회에서 선물을 보내여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보내여온 선물을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에티오피아 아디스 아바바 청년협회대표단 단장인 겔타 에르미야스 마테우스 위원장이 3일 해당 부문 일군에게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회고위원회

여러 나라에서 결성

김일성대원수회고 나이제리아전국위원회가 6월 24일 아부자에서 결성되였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나이제리아인민민주당 신용위원회 위원이며 전 국회상원 부의장인 나이제리아조선친선협회 위원장 이브라힘 만루가, 부위원장으로 전 국회하원 의장 아군와 아나에크웨가, 서기장으로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위원장 알하싼 땀뎀 무함마드가 선출되였다.

회고위원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2돐에 즈음하여 그이의 불멸의 혁명업적과 빛나는 생애에 대하여 그리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나라의 자주권수호와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이룩하고있는 성과들에 대하여 널리 소개선전하며 회고모임, 영화감상회 등 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김일성동지회고 로씨야 나호드까시위원회 결성식이 6월 24일에 진행되였다.

결성식에는 로씨야련방공산당 연해변강 나호드까시위원회 인사들이 참가하였다.

로씨야련방공산당 연해변강 나호드까시위원회 비서 체르니호는 결성식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김일성동지는 20세기를 대표하는 가장 걸출한 령도자, 불세출의 위인, 인류의 대성인이시다.

그이의 불멸의 업적과 고매한 풍모에 대한 칭송과 흠모의 목소리가 세계 진보적인민들속에서 끊임없이 울려나오고있다.

7월 8일에 즈음하여 우리는 탁월한 사상리론과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력사와 인류앞에 영원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신 김일성주석의 성스러운 혁명생애를 감회깊이 회고할것이다.

결성식에서는 회고위원회 위원장, 서기장으로 로씨야련방공산당 연해변강 나호드까시위원회 제1비서 젤레노브와 비서 체르니호가 선출되였다.

회고위원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2돐에 즈음하여 그이의 빛나는 혁명생애와 업적을 회고하는 여러가지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김일성주석회고 베넌전국위원회 결성식이 6월 24일 꼬또누에서 진행되였다.

결성식에는 베넌 《김정일장군 만세》친목회, 주체사상연구 베넌전국위원회, 베넌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소조, 꼬또누기자대학의 인사들이 참가하였다.

결성식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베넌 《김정일장군 만세》친목회 위원장인 주체사상연구 베넌전국위원회 위원장 혜쑤 꼬호비는 김일성주석께서는 10대의 어리신 나이에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구원하기 위한 혁명투쟁의 길에 나서시여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창시하시고 조선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시였다고 칭송하였다.

베넌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소조 책임자인 꼬또누기자대학 학장 빠스깔 준체메는 김일성주석께서는 조국통일 3대원칙과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비롯한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방안들을 제시하시여 조선통일위업에 불멸의 업적을 쌓으심으로써 나라의 통일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시였다고 격찬하였다.

결성식에서는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혜쑤 꼬호비가, 서기장으로 빠스깔 준체메가 선출되였다.

회고위원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2돐에 즈음하여 그이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출판보도물에 널리 소개선전하며 회고모임, 영화감상회 등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위대한 김일성주석각하회고 방글라데슈위원회가 6월 25일 방글라데슈 각 정당, 친선 및 련대성단체, 주체사상연구조직들의 공동주최로 다카에서 결성되였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민용항공 및 관광상인 방글라데슈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파에드 칸 메는 이 선출되였다.

회고위원회는 7월 8일까지를 회고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회고모임 등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서거 22돐 스리랑카회고위원회가 6월 27일 콜롬보에서 결성되였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스리랑카자력갱생연구회 감파하지부 위원장 프라디프 위제라트나 세카라가, 서기장으로 아시아지역 주체사상연구소 리사이며 스리랑카자력갱생연구회 위원장인 스리랑카인민조선친선협회 서기장 더블유. 에이. 무빈두와 르다네가 선출되였다.

회고위원회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업적에 대한 토론회와 회고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이 땅우에 천하제일강국,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자

평안북도, 황해남도, 자강도, 강원도, 함경남도군민경축대회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것을 축하하는 평안북도, 황해남도, 자강도, 강원도, 함경남도군민경축대회가 4일에 각각 진행되였다.

대회장들은 당 제7차대회 결정 관철을 위한 총정의 200일전투가 힘있게 벌어지는 격동적인 시기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리 공화국의 최고령도자로 높이 받들어모신 크나큰 감격과 환희에 넘쳐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이 땅우에 기어이 천하제일강국,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워 고대아말 혁명적열의를 안고 모여온 각계층 군중들로 차고넘치였다.

대회장들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있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만세!》,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만세!》라는 구호판들이 대회장들에 세워져있었다.

또한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사회주의강국》, 《최후승리》 등의 구호판들과 글발들이 세워져있었다.

지방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공장, 기업소, 농장, 대학 등의 일군들과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각계층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대회들에 참가하였다.

대회들은 《김정은장군께 영광을》 노래주악으로 시작되였다.

평안북도에서

평안북도군민경축대회에서는 김능오 도당위원회 위원장의 경축보고에 이어 조선인민군 장령 리금철, 도청년동맹위원회 1비서 백학룡 등이 축하연설을 하였다.

보고자와 연설자들은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도안의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열화같은 흠모의 마음을 담아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리였다.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미제와 온갖 적대세력들의 극악한 도전과 압살책동을 짓부시며 세기에 빛나는 대변혁과 패승을 련이어 안아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주체조선의 존엄과 위용이 온 누리에 떨쳐지게 된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를 받들고 총정의 70일전투의 불길높이 락원기계련합기업소, 구장지구탄광련합기업소, 구성공작기계공장을 비롯한 인민경제 선행부문에서 전례없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여 높이 세운 전투계획을 넘쳐 수행한데 대하여 말하였다.

경공업부문에서도 증산경쟁의 열풍을 일으켜 인민소비품생산에서 대혁신, 대비약이 일어났으며 당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에 의하여 신의주육아원, 애육원이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되고 도안의 시, 군소재지들이 훌륭히 변모된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인민군장병들과 도안의 전체 인민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리 공화국의 최고수위에 높이 받들어모신 끝없는 영광과 행복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이 땅우에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울 불타는 열의에 충만되여있다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완성하기 위하여서는 모두가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그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선군의 한길을 따라 신심드높이 투쟁해나가야 합니다.》

보고자와 연설자들은 혁명의 수뇌부 절사옹위는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의 근본핵이라고 하면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사상과 권위를 절대화하며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철통같이 다져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인민군대는 세상천지가 엎뒤뻔뒤 질쳐도 오직 한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만을 굳게 믿고 따르며 천겹만겹의 천연요새가 되고 무쇠방패가 되여 당중앙위원회와 금수산태양궁전을 절사옹위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전후 천리마시대의 영웅적로동계급처럼 자력자강의 정신과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높이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예비와 가능성을 남김없이 탐구동원하고 사회주의증산경쟁을 힘있게 벌려 전례없는 생산적앙양을 일으켜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청년들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격전장들에서 세상을 들었다놓는 영웅청년신화들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며 최후결전의 시각이 오면 조국수호전에 용약 떨쳐나설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황해남도에서

황해남도군민경축대회에서는 박영호 도당위원회 위원장의 경축보고에 이어 조선인민군 장령 리재성, 도농업과학분원 원장 안철, 도청년동맹위원회 1비서 리창성이 축하연설을 하였다.

보고자와 연설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공화국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되신것은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존엄과 국력을 세계만방에 떨치며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는데서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민족적대경사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령도를 충정으로 받들고 위대한 김정은시대를 빛내이는 보람찬 투쟁에 모든것을 다 바쳐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직접적담당자라는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자력자강의 기치를 억세게 틀고나아가며 당에서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를 기어이 점령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도에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농사를 잘 지어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새로운 농업과학연구사업에 보다 큰 힘을 넣으며 올해 알곡생산계획을 반드시 수행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인민군장병들은 싸움준비를 더욱 완성하여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감히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털끝만큼이라도 건드린다면 무자비한 타격으로 원쑤들을 모조리 축당 쳐버릴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청년들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높이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이 세상 끝까지 따르며 목숨바쳐 결사옹위하는 용맹한이 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자강도에서

자강도군민경축대회에서는 김재성 도당위원회 부위원장의 경축보고에 이어 조선인민군 군관 김재선, 도직맹위원회 위원장 김창선, 강계제2사범대학 학생 박경철이 축하연설을 하였다.

보고자와 연설자들은 일찍부터 위대한 김정일동지와 선군혁명의 길에 함께 계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운 주체100년대진군을 전두에서 승리적으로 이끄시여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였다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받들어모신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크나큰 영광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전당과 온 사회를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의도대로 숨쉬고 움직이는 사상적순결체, 조직적전일체로 비상히 강화해나감으로써 우리 식 사회주의의 정치사상진지를 반석같이 다져나갈데 대하여 말하였다.

기계공업부문의 로동계급이 이룩한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최첨단설비들을 더 많이 개발생산하고 인민경제 선행부문에서 파갑한 돌격전으로 생산한 라격으로 원쑤들을 모조리 축당 쳐버릴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과학농사열풍을 일으켜 알곡과 담채, 누에고치, 축산물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고 경공업공장들과 지방공업공장들의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명제품들을 더 많이 생산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일군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관을 적극 따라배워 광범한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을 적극 불러일으키며 충정의 200일전투의 앞장에 서서 자기 부문, 자기 단위를 이끌어나가는 만리마시대의 척후병, 기관차의 역할을 다할데 대하여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유일적령군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인민군대를 사회주의수호전의 절사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돌격대로서의 성스러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가는 백두산혈통에강군으로 튼튼히 준비시켜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주체의 혈통, 백두의 혈통을 이어받은 청년들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격전장들에서 만리마의 속도로 총돌격, 총대진하여 청년강국의 위용을 남김없이 떨쳐나갈데 대하여 그들은 강조하였다.

강원도에서

강원도군민경축대회에서는 박정남 도당위원회 위원장의 경축보고에 이어 조선인민군 군관 백명철, 문천강철공장 지배인 배류필, 도청년동맹위원회 비서 한철진이 축하연설을 하였다.

보고자와 연설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전체 군대와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속에 공화국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되신것은 태양민족의 혁명적대경사이라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에 의하여 우리 혁명무력은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결사보위하는 최정예의 혁명강군으로 더욱 튼튼히 준비되고 우리 공화국이 세계적인 군사강국, 핵강국의 전렬에 당당히 올라섰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당의 뜨거운 손길아래 강원도에 세상에 둘도 없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마식령스키장, 원산육아원, 애육원과 원산초등학원, 중등학원, 원산구두공장, 갈마식료공장, 원산군민발전소를 비롯한 만년대계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수많이 일떠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도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당이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돌파구를 열어나가기 위한 총정의 200일전투의 불길높이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고있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강원땅인민들이 불굴의 정신력을 높이 발휘하여 공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고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무조건 점령하며 수산, 경공업부문에서 집단적혁신을 일으켜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분계연선을 지켜선 인민탑게 당의 선군혁명로선과 병진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며 군민대단결을 더욱 강화하고 전민항전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어나가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청년들은 《백두의 칼바람에 돛을 달고 조선혁명의 침로따라 폭풍쳐 내달리자!》는 당의 구호를 심장에 뜨아박고 원산지구전실 등 주요전투장마다에서 청년들의 발걸음소리를 더욱 높여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함경남도에서

함경남도군민경축대회에서는 김성일 도당위원회 위원장의 경축보고에 이어 조선인민군 군관 정성일, 2.8비날론련합기업소 지배인 장명학, 도청년동맹위원회 비서 김영진이 축하연설을 하였다.

보고자와 연설자들은 최세의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리 공화국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크나큰 행복이라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선군령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마천해수욕장을 찾으시여 세계적인 해수욕장으로 변모시킬 웅대한 설계도를 펼쳐주시였으며 신포원양수산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며 기업소가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신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고산땅의 첫물과일도 함흥시민들에게 먼저 보내주시고 함흥육아원, 애육원, 과학자살림집을 마련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속에 도안의 곳곳에서 눈부신 성과들이 수많이 이룩되고있다고 말하였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세계에 높이 떨쳐지고있는 주체조선의 모습에서, 이 땅에서 창조되고있는 경이적인 기적과 눈부신 성과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천출위인상을 더더욱 심장깊이 절감하며 원수님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갈 충정의 맹세로 가슴 불태우고있다고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를 기어이 점령함으로써 영광스러운 김정은시대를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자랑찬 승리로 빛내여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인민군장병들은 당이 안겨준 정의의 핵탄을 비롯한 무기, 전투기술기재들의 경상적동원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어 적들이 감히 우리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을 해치려든다면 단호하고도 무자비한 선제타격으로 침략의 본거지들을 짓뭉개버릴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자력자강의 정신과 과학기술을 확고히 틀어쥐고 도안의 화학, 전력, 채취, 기계공업과 경공업, 농업, 수산업을 비롯한 인민경제전반에서 비약적발전을 이룩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청년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발걸음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어 언제나 곧바로, 당을 따라 앞으로 백두의 행군길을 꿋꿋이 걸어나가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보고자와 연설자들은 최세의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리 공화국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한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당의 사회주의강국건설구상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투쟁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노래주악으로 대회들은 끝났다.

【조선중앙통신】

자강도군민경축대회장

인민이 안겨사는 영원한 삶의 품

당을 강화하는것도,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는것도 결국은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이 잘살게 하자는데 목적이 있다는것을 내외에 엄숙히 선언한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후손들, 김정일동지의 전사, 제자들에 대한 강렬한 사랑과 뜨거운 정이 위대한 사상의 정연한 론리속에 맥박치는 당 제7차대회 보고는 날이 갈수록 천만의 심장을 억세게 틀어잡고 매혹과 흠모의 열과가 일어번지게 하고있다.

한 나라, 한 민족이 도달할수 있는 숭고한 사상감정의 최경지에서, 자기 령도자에 대한 열화같은 신뢰심을 지니고 사는 세상에 놀도 없는 긍지와 행운으로 우리 인민은 소리높이 자랑하고 선언한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정생의 념원을 실현할 위력한 보검을 억세게 틀어쥐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진정 시련의 날에나 영광의 날에나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살 백두산식솔의 하늘이시라고,

광대한 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자기 령도자에 대한 전체 인민의 절대적인 믿음, 오직 주체조선에만 존재하는 이 위력한 무기가 있기에 시간과 정의는 철두철미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의것, 강대한 주체조선의것이라고.

매혹의 샘줄기

인간이 인간에게 매혹된다는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하물며 위인에 대한 매혹이 전인민적인 감정으로 승화된다는것은 결코 말처럼 간단한 일이 아니다.

무릇 인민의 령도자는 인민의 마음에서부터 추대된다고 하였다.

인민의 마음속에서 먼저 추대되는 인민의 령도자는 인민에 대한 정과 열을 천품으로 지닌 인민적성품의 최고체현자인것으로 하여 인민의 다함없는 사랑과 신뢰를 받기마련이다.

철두철미 인민에 대한 사랑으로 일관된 김일성, 김정일동지 당의 명맥을 꿋꿋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여 조선로동당의 위업이 승승장구한다는것은 오늘 세계가 공인하는 엄연한 현실이다.

력사적인 당 제7차대회 보고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간고하고 시련에 찬 투쟁을 통하여 우리 인민은 당을 절대적으로 믿고 자기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게 되였으며 우리 당은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인민들과 뜻과 정으로 혼연일체를 이룬 혁명적당, 어머니당으로 강화발전되였습니다.》

어찌하여 우리 천만의 심장을 자나깨나 격동시키며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매혹과 신뢰심이 이 땅을 날로 뜨겁게 달구는것인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령도하시는 조선로동당의 인민관이 그에 대하여 응변으로 대답한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모시는 것처럼 우리 인민을 받들어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다!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며 인민이 원한다면 하늘의 별도 따오고 물우에도 꽃을 피워야 한다는것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인민관이고 한생의 좌우명이였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하늘처럼 여기신 우리 인민을 수령님과 장군님의 영상으로 정히 새겨안고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받들어나가려는것이 우리 당의 인민관이다!

조선의 오늘과 그 휘황찬란한 래일을 안으시고 승리와 영광의 꽃을 한껏 펼친 최후승리의 함대를 지휘하시는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의 위인적향기는 곧 인민에 대한 사랑이고 그이의 정치의 중핵은 위대한 인민관이다.

인민관문제는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작풍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명실공히 사상문제이다.

일군들의 사고와 실천의 중심에 언제나 인민의 리익이 놓여있어야 하고 일군들이 당의 인민관을 신조로, 넋으로 간직할 때 무슨 일이나 잘해나갈수 있다는것이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의 의도이다.

일군들의 인민관문제를 위대한 우리 당의 권위, 우리 혁명의 천하지대본인 일심단결과 직결된 문제로 중시하시는분이 바로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사람들은 지금도 4년전 봄날 만경대유희장에 펼쳐졌던 눈물겨운 화폭을 잊지 않고있다.

도로가 심히 깨진 유희장구내, 보도블로크사이로 돋아난 잡풀, 도색을 제대로 하지 않은 유희기구들…

도로바닥이 갈라터진다고 하여 일군들의 당적량심까지 갈라터진단 말인가.

너무도 안타까우시여 허리를 굽히시고 몸소 잡풀을 하나하나 뽑으신 우리 원수님.

일군들의 눈에는 이런것이 보이지 않는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려는 량심이 있다면 이렇게 일할수 있는가. 설비껍신같은것은 몰라도 사람의 손이 있으면서 잡풀이야 왜 뽑지 못하는가!

인민에 대한 복무정신이 랭이 아니라 그 이하이다. 이것은 실무적인 문제이기 전에 사상관점에 관한 문제이다. 만경대유희장은 인민들이 리용하는 곳인데 이렇게 방심해두고도 량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가슴아파하지 않는 일군, 인민들을 귀하게 여길줄 모르는 일군들이 천만명이 있은들 무슨 필요가 있는가!…

만경대유희장구내에만 쩡쩡 메아리치지 않았다.

삼시에 온 나라 천만군민모두의 심장에 금언으로 새겨진 위대한 멸사복무의 호소였다.

그 다음날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준절히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모두가 인민의 아들딸들이다. 인민의 아들딸로서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일해나가야 한다!

자나깨나 인민을 안으시고 인민에 대한 사랑의 열망으로 심장의 더운 피를 끓이시는 인민의 위대한 어버이만이 이런 전설같은 력사를 수놓을수 있다.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합!》은 우리 일군들이 틀고나가야 할 애국의 구호이라고, 일군들이 인민들과 한전호에서 생사고락을 같이하고 풍설도 함께 지며 피와 살, 뼈를 바치면 인민들이 애국의 문을 열고 부강조국건설에 떨쳐나선다고 하시면서 인민사랑의 위대한 서사시를 엮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흠모는 오늘 가장 훌륭하고 아름다운 노래로 시대의 하늘가에 메아리치고있다.

나라의 중대사를 토의하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확대회의에서 결론하시면서도 당중앙과 뜻과 운명을 같이하는 우리 일군들은 당의 인민관을 자기의 신조로, 넋으로 만들어야 하며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고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것을 사업과 생활의 철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하신 우리 원수님,

나라의 정세가 일촉즉발의 위기에로 치달을 때에도 곤물피해를 입은 멀리 파선땅의 사랑하는 인민을 위하여 며칠밤을 밝히시며 구조전투를 지휘하시고 하늘길, 바다길, 령길을 달려 전화위복의 기적을 안아오신분.

완공을 앞둔 어느 한 식당을 돌아보실 때 일군들에게 의자에 앉아보라고, 의자등받이에 허리를 기대려면 직각으로 앉아야 하는데 직각으로 앉아 어떻게 밥을 편안히 먹을수 있겠는가고, 이것은 대충 먹고 떨리 일어서 가라는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식당의자를 앉기 편안하게 잘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하신 우리 원수님.

로인들을 모시고 아이들을 돌보아주는 친혈육의 심정으로 온 나라 방방곡곡에 양로원과 육아원, 애육원, 초등학원, 중등학원들을 일떠세워주시고 당에서 전적으로 맡아 그들을 돌보아주도록 하신 자애로운 어버이,

인민에 대한 정과 열을 천품으로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기에 우리 당의 70년사를 총화하는 승리의 대축전장에서도 《우리모두 위대한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해나아갑시다!》라고 뜨겁게 호소하시여 세계정치계를 격동케 하고 력사적인 당대회 높은 연단에서도 《전당이 위대한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자!》, 이것이 오늘 우리 당이 틀고나가야 할 투쟁구호이라고 천하를 진동시키신것 아니던가.

세계의 여기저기에서 몸둘 곳 없는 사람들의 끝없는 행렬, 그 비참한 모습이 인류의 가슴을 아프게 할 때 우리 인민을 위대한 인민으로, 조선로동당의 돌도 없는 지지자, 조언자, 방조자로 하늘높이 떠올리시고 력사의 돌풍, 찬바람으로부터 보호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사랑하는 인민들에게, 병사들에게 필요한것이면 하나에서 백까지 다 자신께서 관심하고 책임지는것을 응당한 본분으로 여기시며 눈물겨운 헌신의 자욱을 이어가시는 자애로운 어버이의 모습이 온 나라 인민의 가슴에 꽉 차있기에 이 땅에 사랑의 정넘쳐나고 낮에도 밤에도 사랑의 해빛으로 뜨겁게 달아있는 우리 조국이 아니던가.

이런 위대한 인민의 어버이께 누가 진심으로 매혹되지 않을수 있으랴. 이런분을 따르는 길이면 과연 누가 시련의 천만리인들 주저할수 있으랴.

그것이 매혹과 신뢰심의 원천이다.

우리에게는 인류가 알지 못하는 위력, 그것만 있으면 영원히 자주적근위병으로 존엄떨치고 만족만대로 번영할수 있는, 세상에 오직 우리 인민만이 독점한 최강의 무기인 자기 령도자에 대한 열화같은 매혹과 절대적인 신뢰심이 있다.

매혹과 신뢰심으로 충만된 위대한 인민의 정신력앞에서는 제국주의자들의 전대미문의 제재와 봉쇄도, 비렬한 내부와해책동도 전혀 맥을 추지 못한다. 그처럼 이러운 시련속에서도 세상을 놀래우는 눈부신 기적들을 련이어 창조하는 주체조선의 영광스러운 행로가 이를 실증하고있다.

사랑의 바다

사회주의정치는 본질에 있어서 인민에 대한 사랑의 정치이다.

우리 인민들과 병사들을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주고싶은것이 자신의 심정이라고 늘 외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무한한 활력과 열정으로 인민을 위해 정을 다하는 헌신의 탕, 변함없는 어머니당으로, 어떤 천지풍파가 닥쳐와도 인민들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자기의 본분에 무한히 충실하도록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을 강화발전시켜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백두산혁명일가의 가풍을 그대로 이으시여 백두산식솔이 사는 이 나라의 모든 곳에서 인민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어느 한 사람이라도 마음에 그늘이 질세라 따뜻이 보살펴주도록 하시며 일군들이 인민들의 신임과 기대에 보답하도록 이끌어주시는분이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인민의 리익을 떠난 당의 리익이란 있을수 없다. 인민의 리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데 성스러운 우리 당활동의 최고원칙이 있다.

력사적인 당 제7차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는 인민을 존중하고 인민들의 운명을 지켜주며 인민들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는것을 철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엄숙히 선언하시였다.

우리 당에 있어서 인민들이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고 인민들이 어려워하는 문제, 절린 문제를 풀어주는것보다 더 선차적인 일은 없다.

수도시민들의 참된 복무자, 인민의 충복이라는 자각과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어머니된 마음으로, 어머니의 손길로 수도시민들을 잘 돌봐줄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깊은 친필서한을 뼈에 새기고 수도시민들의 물문제, 중심구역 고층아빠트들의 주민용승강기 정상운영문제, 수도의 려객운수문제를 풀기 위한 어렵고 방대한 전투장마다에서 신발창이 닳도록 앞채를 메고 달린 평양시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상관점과 헌신은 우리 일군들이 자식을 위해 오만자루의 품을 들이는 어머니처럼 인민이 아파하는 문제를 풀기 위해 품을 들이고 진정을 바칠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것과도 같은 기적을 낳는다는것을 실증하고있다.

변함없도 마를줄도 모르는 사랑의 저수지, 충신을 키우는 사랑의 요람인 어머니의 품,

어머니의 마음은 자나깨나 자식에게로 가있다. 잠시 숨차를 떠나도 밥은 제대로 먹었는지, 잠자리는 불편하지 않은지…

이런 어머니에게 어찌 병신자식, 가슴앓이를 하는 자식이 따로 있을수 있으랴.

마음속상처가 있는 한 가정을 료해하시고 자식의 아픈 마음을 놓고 누구보다 가슴아파하며 어루만지고 살점도 뗘도 서슴지 않고 주는것이 어머니이라고, 자식이 잘되는것을 보며 기뻐하고 그것을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한생의 락으로 여기는것이 이 세상 어머니들의 마음이라고, 그래서 우리 당을 어머니라고 하는것이라고 사랑의 친필서한을 보내주신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

한가정에만 넘친 사랑이 아니였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애지중지 품들어 키워오신 온 나라 인민모두를 울린 그이의 심장의 목소리였다.

생활에서 기초를 이루는 물질생활도 중요하다. 보다는 사회적집단의 사랑과 믿음속에서 사회정치적생명을 빛내이며 위대한 당의 품에서 보람찬 삶을 꽃피우는것이 더욱 중요하다.

하루아침에 한개 군을 통채로 감격과 환희의 도가니로 끓어번지게 한 혁명일화가 오늘도 우리 천만군민의 가슴을 뜨겁게 울리고있다.

몇해전 2월초 어느 한 군의 문화회관에는 군안의 일군들이 모이였다. 그들은 비록 파오를 법하였지만 애도기간에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충정과 의리를 지켜 상제의 도리를 다하였던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군일군들의 이런 사업정형을 료해하시고 지난날의 파오를 문제삼아 처벌하지 말고 본래의 직무에서 그대로 사업하도록 함데 대한 대해같은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였다는 당중앙위원회 일군의 격정어린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리였다.

순간 회관천정이 무너질듯 한 폭발적인 만세의 환호가 터졌다.

그 환호소리에 화답하여 회관밖에서도 사람들이 서로 얼싸안고 목메여 만세의 환호성을 터치였다.

그날 밤 이곳 일군들이 멀리 평양의 하늘가를 바라보며 진정을 담아 삼가 올린 편지를 보시고 동무들을 굳게 믿는다는 사랑의 친필서한을 보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혁명전사 한사람한사람의 육체적생명은 물론 정치적생명도 귀중히 여기고 끝까지 지켜주시려는 그이의 한없는 포용력이 낳은 또 하나의 혁명일화이다.

사람은 돌부처가 아닌 이상 사업과 생활과정에 과오를 범할수도 있고 용서받기 힘든 죄를 지을수도 있다.

병든 자식, 상처입은 자식을 탓하지 않고 더 마음을 쓰며 사랑과 정으로 풀어주고 아픈 상처를 감싸주며 또다시 일으켜 내세워주는 품이 바로 천만의 철의 대오를 안으신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의 대해같은 품이다.

언제인가 한 일군이 범한 파오의 엄중성으로 하여 혁명대오에서 떨어져나가게 되였을 때였다.

밤새워 그 일군의 자료를 보고 또 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만약 그에게 범죄가 99%라고 하여도 1%만이라도 인간의 초보적인 량심만 살아있다면 당에서 병든 자식 탓하지 않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믿어주고 풀어주어 얼마든지 교양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그 일군에 대하여 다시 료해해볼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락동강까지 나갔다온 전쟁로병의 아들로서 자기가 범한 잘못을 숨기지 않고 솔직히 인정하면서 성근하게 검토를 받는다는것이 그 일군에 대한 재료에 자료였다.

이 사실을 아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가 자기의 과오를 깊이 반성하였다니 그에게 1%의 량심은 남아있다고 볼수 있다고, 그 1%를 믿자고 하시면서 자신께서는 그를 관대히 용서해줄뿐아니라 대담하게 믿고 본래의 직무에서 일하게 하려고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만사람의 가슴에서 격정의 용암이 이글거리게 하는 중대한 일이였다.

그후 일군은 인생의 새 출발을 하며 얼마나 큰 사랑의 대하가 이 땅에 사품쳐흘렀던가.

세계에 자기의 령도자로부터 운명을 보호받고 친혈육의 정을 초월하는 사랑을 받으며 사는 인민, 민족이 있는가.

세상을 돌려보라.

군비경쟁, 시장쟁탈전, 돈주머니경쟁…

인민에 대한 사랑으로 분분초초가 흐르는 나라는 오직 경애하는 원수님을 온 나라 대가정의 어버이로 높이 모신 우리 조국뿐이다.

이런 위대한 인민의 어버이이시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의 마음을 제일로 잘 아시는 정치가로, 인민과의 혼연일체를 천하지대본으로 중시하시는 세상 제일 걸출한 령도자로 만민의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를 받고계시는것이다.

위대한 현실의 목격자, 체험자들만이 자기의 령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지닐수 있고 전인민적인 사상감정의 분출인 노래 《그이 없인 못살아》와 같은 시대의 명곡을 낳게 할수 있다.

이런 훌륭한 노래를 가지고있는 나라, 령도자와 인민이 운명공동체로 굳건히 결속된 나라는 세상에 오직 하나 우리 조국뿐이다.

* *

억만금보다 더 귀중한 인민에 대한 우리 당의 믿음과 사랑의 위대한 력사를 뼈에 새긴 일군이라야 경애하는 원수님과 뜻과 운명을 같이할수 있고 우리 당의 위대한 혼연일체의 력사를 끝없이 빛내이는 영예로운 길에서 자기의 사명을 다할수 있다.

우리 당의 인민중시사상을 신념으로 삼고 인민을 하늘처럼 숭배하며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 일군이 우리 당이 바라는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이다.

위대한 당의 품에서 성장한 우리 일군들의 존재가치는 인민에 대한 사랑에 있다. 한 일군의 능력이 부족하면 한개 단위의 발전을 지체시키는 후과가 빚어지지만 인덕이 없으면 인민을 등지여 당의 권위를 훼손시키는 결과까지 초래할수 있기때문이다.

우리 일군들에게 있어서 당의 권위는 생명보다 귀중하다.

인민의 기쁨과 행복속에 일군들의 기쁨과 행복이 있고 인민의 기쁨과 행복이 커갈수록 당의 위업이 전진한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의도이다.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정신은 당의 권위와 직결된 문제인것으로 하여 우리 일군들에게 있어서 멸사복무정신은 의무이기 전에 량심으로, 신조로 되여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일군들이 그 어느때보다도 우리 당의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뜻을 만장약하고 인민의 기대에 보답하기 위한 멸사복무의 길에서 자기의 당성, 혁명성을 검증받아야 할 책임적인 시기이다.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의 길에서 우리 일군들은 사람들로부터 《우리》라고 불리우는 일군, 인민들이 기억하는 일군, 죽어서도 사람들에게 여운을 남기는 일군이 되여야 한다.

언제인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지금 우리 인민들이 조선로동당을 어머니당이라고 부르고있는데 어머니당의 일군들은 말그대로 사람들에게 자기를 낳아 키워준 어머니다운 인상을 주어야 한다는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인민들의 어머니, 이는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의 시대에 우리 일군들이 받아안을수 있는 최상의 명예이며 재부이다.

우리 일군들은 항상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자식을 키워 내세워주는 더없이 인자하고 사려깊은 훌륭한 어머니의 모습으로 인민앞에 나서야 한다.

이런 훌륭한 어머니들이 많아야 당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는 신념의 대오가 무성한 숲을 이루게 되고 어디서나 심장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로동당만세소리가 높이 울릴수 있다.

력사적인 당 제7차대회 보고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일심단결이 혁명의 천하지대본이라면 민심은 일심단결의 천하지대본이라는 위대한 정치철학으로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건설의 사상리론적보물고를 풍부히 하시였다.

민심은 옳고그른것을 가르는 기준이다.

민심을 제때에 정확히 파악하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주는 문제는 단순히 사람들의 말에 어떻게 귀를 기울이는가 하는 문제에 앞서 광범한 군중이 당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게 하는가 그렇지 못하게 하는가 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우리 일군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강령적인 카르치심을 심장에 새기고 모든 사업을 민심에 맞게 조직진행하여야 하며 민심을 외면하거나 호리게 하는 현상을 철저히 경계하여야 한다.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어머니당으로서의 조선로동당의 본태를 고수하고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철저히 옹호보장하는데서 세도, 관료주의, 부정부패는 추호도 용납할수 없는 《주적》이다.

력사적인 당 제7차대회 보고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여러 부문 일군들속에서 나타나는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현상들을 해부학적으로 분석하고 그 근원을 찾아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세울데 대하여 엄숙히 천명하시였다.

인민의 의사, 인민의 리익과 배치되는 행위들은 스스로 독약을 먹는 자살행위이라는것이 세계정치사가 남긴 심각한 교훈이다.

집권당이라고 하여, 력사가 오래다고 하여 당의 령도적권위와 전투력이 높아지고 혁명을 잘 이끄는것이 결코 아니였다.

조선의 참모습이며 선군혁명의 천하지대본인 우리의 일심단결을 위하여 일군들은 나라의 근본인 인민, 절대적으로 귀중한 존재인 인민의 리익에 무조건 복종하여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인민이 영원하듯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고 인민과 함께 백옥같은 애국충정을 다해나가는데 영원한 정의와 승리가 있다.

천만군민이 사랑하는 어머니의 모습과도 같은 당기를 우러르며 휘황찬란한 미래를 향하여 폭풍쳐 내달리는 조선로동당의 위업은 얼마나 성스러운것인가.

피눈물의 바다를 넘으며 이 위대한 철리를 더 잘 깨달은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열화의 일편단심으로 심장을 불태운다.

우리 운명, 우리 미래, 우리 행복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천만년 높이 모시고 받들리!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아름다운 사상감정을 지닌 우리 군대와 인민, 그 위대한 정신력은 천지풍파로도 천자만으로도 절대로 깎지 못한다.

당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는 인민의 마음을 혁명의 제일재부로 소중히 간직하시고 인민을 위하여 만짐을 지고 가시밭도 웃으며 헤치시는 령도자의 마음속엔 자나깨나 인민이 있고 인민의 심장속엔 령도자에 대한 그리움, 충정만이 불타는 이 위대한 일심단결의 무기로 전진하는 김일성-김정일주의당의 위업은 필승불패이다.

본사기자 량 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여러 나라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레이캬비크

이슬란드공화국 대통령당선자

구드니 요한네쏜각하

나는 당신이 이슬란드공화국 대통령으로 선거된데 대하여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사이의 관계가 호상리익에 맞게 더욱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귀국의 번영을 위한 당신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105(2016)년 6월 28일 평 양

끼갈리

르완다공화국 대통령

뽈 까가메각하

나는 르완다인민의 민족적명절에 즈음하여 당신과 당신을 통하여 친선적인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사이에 존재하는 친선협조관계가 여러 분야에 걸쳐 더욱 확대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나라의 번영을 위한 당신과 귀국정부와 인민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105(2016)년 7월 4일 평 양

아흡개의 오이와 우유배정표

작고도 큰것이란 말이 있다.

오이 아홉개, 우리 당의 70여년력사의 추억속에서 아홉개의 오이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작은것일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에도 얼마나 큰것이 담겨져있는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수령님은 혁명가적풍모에 있어서나 인간적풍모에 있어서나 그 누구도 견줄수 없는 위인중의 위인이시다.》

주체36(1947)년 겨울에 있은 일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팽이 자그마한 온실에서 갖가지 남새를 손수 가꾸시였다. 그해 겨울에는 남새들이 잘 자라서 첫눈이 내릴즈음에는 벌써 싱싱한 오이들이 주렁졌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느날 한 일군에게 그 오이를 다 따오라고 하시였다. 오이는 모두 아홉개였다.

그이께서는 오이를 두개씩 나누어놓으시였다. 두개씩 네몫이 되고 오이 한개가 남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흰종이 넉장을 가져오게 하시더니 그우에 손수 《김책》, 《최용건》… 하고 각각 이름을 쓰시였다.

그러시고는 그것을 네몫으로 나눈 오이우에 놓으시며 요즘 일군들이 일에 붙혀있다나니 건강이 나빠졌는데 입맛이라도 돋구게 나누어주라고 이르시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남은 오이 하나를 집어 한쪽옆으로 내놓으시였다. 결국 그이께는 오이 하나가 차례지게 되였다.

사실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 조국건설을 위하여 누구보다 헌신분투하고계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 인민을 주체36(1947)년 인민경제계획수행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고 새해벽두부터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였다.

1월에는 수송문제를 푸시기 위해 청진철도공장을 찾으시였고 나흘후에는 원산철도공장(당시)으로 가시였다. 뒤이어 2월과 3월에도 평안남도의 여러 군을 현지지도하시였으며 그후에는 분수봉에 오르시여 나무도 심으시고 남포시를 찾으시는 등 공장과 어장, 농촌으로 쉬임없이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였다.

조국과 인민을 위해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쳐가시면서도 언제나 자신보다 먼저 동지들을 생각하시는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일군은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수 없었다.

사실 그 전해 여름에도 특갈은 일이 있었다.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 친척분을 댁으로 청하시였다. 그러시고는 그에게 지금 전국사업이 복잡하다나니 우리 동무들이 밤잠을 자지 못하고 일하는데 많은 동무들이 건강이 나빠지고 허약해진다고 하시며 젖소 다섯마리를 드릴터이니 우유를 내여 우리 동무들에게 공급해주십시오라고 하시였다.

당시로 말하면 해방되여 한해가 되나마나한 때여서 아직 인민생활이 넉넉치 못하였다. 일군들의 생활도 다를바가 없었다. 그런 형편에서도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새 조국건설의 앞장에 서서 한몸을 아끼지 않고 일하였다.

그러한 일군들을 보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마음은 아프시였다. 오랜 세월 산에서 싸우느라고 갖은 고초를 다 겪었고 해방후에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는 그들의 건강이 몹시 걱정되시였다. 그래서 그들의 영양보충을 위하여 여러가지로 생각하시던 끝에 우유를 공급하시려고 생각하신것이였다.

그런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라에 부담을 주지 않으시려고 그 일을 가까운 친척분에게 부탁하셨던것이다.

몇달후 젖소에서 우유가 나온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시며 책상우에 종이 한장을 내놓으시더니 손수 이렇게 쓰시는것이였다.

우유배정표
김 책 한되
최용건 한되
최 현 한되
…
김일성 반되
…

전해에 있었던 이 일을 되새기는 일군의 마음은 안타깝기 그지없었다. 그래서 오이를 몇개만 더 남겨놓자고 위대한 수령님께 말씀드렸다.

그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웃으시며 그래선 안됩니다, 음식이란 많이 먹어서 배가 부르는것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우리 조선사람들은 색다른 음식이 생기면 꼭 이웃끼리 나누어먹군 하였습니다, 항일빨찌산때에도 우리는 강냉이 한이삭이 생겨도 알로 나누어먹군 하였습니다라고 하시였다.

일군은 뜨거운것을 삼키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손수 나누어주신 겨울오이를 집집에 들고가서 전해주었다.

이 세상에 크고 귀한것이 많다 한들 그 오이에 비할수 있었으랴!

언제나 혁명동지들과 고락을 같이하시며 자신보다 동지들을 먼저 생각하신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그이께서는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시기에는 고난의 행군길에서 며칠씩 끼니를 건느시고도 마지막 한홉의 미시가루마저 어린 대원들에게 나누어주시였고 멀리 떠난 대원들을 생각하시며 쉰개의 사슴고기가루봉지에 이름까지 적어 전사하도록 하신 자애로운 어버이이시였다.

《한홉의 미시가루》, 《쉰개의 사슴고기가루봉지》, 《우유배정표》, 《아홉개의 오이》…

우리 혁명의 장구한 력사에는 이런 가슴뜨거운 이야기들도 빛나는 페지를 차지한다. 그것은 우리 혁명의 일심단결의 원천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의 단결이 어찌하여 깨뜨릴수도 허물수도 없는 공고한 단합으로 되는가를 산 력사적사실로 감명깊게 말해준다.

이런 혈연의 동지적사랑이 밑뿌리가 되여 우리 당이 혼연일체를 이루는것이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필승불패성을 낳는것이다.

본사기자 김 준 혁

조선중앙통신사 보도

만리마시대의 새 승리를 향한 련속공격전의 거세찬 불길

충정의 200일전투 첫달 공업총생산액계획 120%로 초과완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존엄높은 조선로동당의 위원장, 영광스러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로 높이 모신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온 나라 천만군민은 우리 당이 펼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휘황한 대로를 따라 용기백배, 기세충천하여 내달리고있다.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의 사상과 정신을 피끓는 심장마다에 뜨아박고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돌파구를 열어제끼기 위한 충정의 200일전투에 총궐기해나선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충정의 70일전투에서 승리를 이룩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첫 한달을 거창한 창조와 위훈으로 빛내이였다.

자력자강의 창조대전, 만리마속도창조운동의 거세찬 불길속에 주체조선의 자위적국방력이 다시한번 힘있게 과시되였으며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부문을 비롯한 경제전선에서 성과들이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이룩되고 수도의 려명거리와 대건설장들에서 눈부신 건설속도가 창조되여 전국적으로 첫달 공업총생산액계획이 120%로 넘쳐 수행되였다.

천만군민이 최후승리의 높은 목표를 향해 다시한번 신들메를 조여매고 힘차게 돌진해나가는 이 전인민적총진군은 당이 안겨준 자력자강의 억센 힘으로 련속공격전의 불길을 거세차게 지펴올려 당 제7차대회정신을 보위하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려는 영웅적인민의 강용한 기상과 투쟁정신의 힘있는 과시로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강령적과업들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며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야 합니다.》

충정의 70일전투로 비상히 앙양된 투쟁기세를 계속 힘차게 고조시켜 대비약, 대혁신의 만리마속도창조운동을 전개할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받들고 온 나라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다시한번 영웅조선의 만리마신화를 창조하기 위한 200일전투에 진입하였다.

대교조전역들을 끊임없이 찾으시며 전인민적총진군을 전투지휘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면불휴의 선군혁명령도는 천만군민을 200일전투승리에로 추동하는 고무적기치였으며 거대한 원동력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심한 지도밑에 국방과학부문에서 주체조선의 핵공격능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데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새로운 전략무기인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 《화성-10》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단행함으로써 200일전투의 자랑찬 승전포성을 높이 울리였다.

필승불패의 군사강국의 위용과 본때를 다시한번 온 세상에 과시한 이 장엄한 뢰성은 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전략적로선과 정책을 받들고 사회주의강국의 령마루를 향해 총공격, 총돌격하고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승리의 신심과 락관을 안겨주었으며 온 나라에 만리마속도창조운동의 불길이 활화산처럼 타번지게 하였다.

당대회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갈 열의를 안고 일군들은 돌파는 전투현장들에서 침입식정치사상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며 만리마선구자대오의 기마수, 기관차가 되여 대중을 증산투쟁, 창조투쟁, 련속공격전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인민경제의 생명선을 지켜선 4대선행부문의 로동계급이 대교조의 전렬에서 200일전투승리의 돌파구를 열어나갔다.

전력공업부문에서 증산의 불길높이 첫달 전투계획을 120%로 수행하였다.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와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 순천화력발전소, 청천강화력발전소의 전력생산자들은 윤탄, 급수계통들의 정비보강과 기술개건을 다그쳐 증산의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고 생산원가를 낮추면서 화력에 의한 전력생산을 장성시켰다.

70일전투기간 높은 생산기록을 세운 기세를 늦춤없이 장진강발전소, 허천강발전소, 서두수발전소, 대동강발전소 등 각지 수력발전소들에서도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들며 물 1당 전력생산량을 늘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련일 계획을 초과완수하였다.

석탄공업부문 로동계급이 계속혁신, 계속전진, 련속공격의 기세드높이 첫달 계획을 빛나게 수행하였다.

온 나라 탄전들에 따라앉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는 속에 화력발전소들에 대한 석탄보장계획이 어김없이 완수되였고 기본굴진, 준비굴진계획도 각각 120%, 130%로 결속되였다.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와 덕천, 북창, 득장, 안주지구탄광련합기업소를 비롯하여 매장량이 풍부한 서부지구 탄광들에서 앞선 채탄방법을 적극 받아들이면서 석탄산을 높이 쌓았다.

장마철전으로 생산량을 대폭 끌어올리기 위한 치렬한 돌격전을 전개하여 석탄공업성적인 생산계획을 140%로 수행한 자랑찬 성과는 그 어떤 고난과 시련이 앞을 막아도 공업의 식량을 책임적으로 보장하려는 우리 탄부들의 비상한 각오와 투쟁정신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증산의 불바람이 금속공업부문에서 세차게 타올랐다.

혁명의 준엄한 년대마다 대고조의 불길을 남먼저 지펴올려 우리 당을 옹위한 충정의 력사와 전통을 이어 강철전사들과 광부들은 자력자강의 혁명정신으로 당앞에 걸의한 첫달 선철, 압연강재, 철광석생산목표를 빛나게 점령하였다.

천리마의 고향에서 주체시대의 새로운 만리마신화를 창조해갈 일념안고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로동계급이 맹렬한 돌격전으로 압연강재생산목표를 돌파하는 전과를 올리였다.

굴지의 대야금기지인 황해제철련합기업소에서 충정의 70일전투 전형단위의 영예를 빛내이는 성과들이 이룩되였으며 김철의 로동계급은 불굴의 정신력으로 용광로들의 만가동을 보장하며 계획보다 훨씬 많은 선철을 증산하였다.

나라의 쇠돌생산에서 큰 몫을 맡고있는 무산과 재령, 은률의 광부들이 월계획수행에서 모범을 보이였다.

인민경제의 선행판인 철도운수부문에서 증송의 기적소리를 높이 울리며 6월 중요화물수송계획을 120%로 초과완수하였다.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장엄한 투쟁으로 끓어번지는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더 많은 짐을 실어날라 200일전투의 전 전선에 활력을 부어주려는 드높은 열정과 기백을 안고 평양철도국 로동계급이 월수송과제를 수행하였다.

개천철도국, 함흥철도국, 청진철도국, 라선철도국에서도 기관차들의 실동률을 높이고 역들사이의 련계를 강화하여 화차머무름시간을 훨씬 줄임으로써 계획보다 많은 물동을 실어날랐다.

기계, 화학, 건설, 건재, 림업 등 중요공업부문들에서 련대적혁신이 일어나 기계설비들과 주체비료, 비날론, 염화비닐, 세멘트, 관유리, 통나무를 비롯한 주요지표계획이 성과적으로 결속되였다.

당의 전투적호소에 결사의 실천으로 화답해나선 기계공업부문의 로동계급이 월생산목표를 120%로 수행하였다.

70일전투의 나날 발전설비, 대상설비생산에서 새 기준, 새 기록을 창조하여온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중요대상건설장들에 속속 보내주었다.

200일전투의 시작부터 힘찬 돌격전을 벌려 첫달 전투계획을 1.2배로 넘쳐 수행한 평양326전선공장을 비롯하여 기계공업부문의 많은 단위들에서 사회주의경쟁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맡은 과제를 기한전에 앞당겨 결속하였다.

채취기계공업국 산하단위들에서도 생산돌격전을 힘차게 벌려 첫달 계획을 170%로 수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화학공업성적으로 높이 세운 첫달 전투목표가 130%로 초과완수되였다.

주체비료생산목표가 성과적으로 달성되고 비날론, 염화비닐생산계획이 2배로 수행되는 혁신이 일어났다.

나라의 소금공업발전에서 전환적의의를 가지는 지하초염수에 의한 소금생산이 경제강국건설에서 온을 내고있는 속에 2.8비날론련합기업소에서 지하초염수로 생산한 소금에 의한 가성소다생산성과를 확대하여 월계획을 110%로 넘쳐 수행하였다. 기업소로동계급은 증산투쟁을 과감히 전개함으로써 주체비날론생산에서 기업소현대화이후 하루최고생산수준을 돌파하였으며 모든 지표생산을 훨씬 늘이였다.

남흥과 흥남의 대화학기지 비료생산자들이 농업전선에 탄약을 보장하는 심정으로 생산공정들에 만부하를 걸어 일정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였다.

피끓는 심장을 당중앙위원회 뜨락에 이어놓고 전에없는 세멘트생산성과로 당의 대건설구상을 실현하는데 크게 공헌한 상원로동계급의 투쟁정신과 기풍을 본받아 각지 건재공업기지들에서 세멘트생산과제를 기한전에 완수하고 유리를 비롯한 건재품생산실적을 부쩍 끌어올리였다.

각지의 림산, 갱목생산사업소 로동계급은 절사관철의 정신력으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감으로써 림업성적인 통나무생산계획을 110%로 수행하였다.

대건설전투장들에서 당의 절심은 조선의 실천이라는 진리를 실천으로 확증하며 10년을 1년으로 주름잡는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이 거세차게 타오르고있다.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악랄한 제재와 압력속에서도 더욱 억세게 떨치고 일어나 세계를 향해 과감히 돌진하는 주체조선의 기상을 힘있게 과시하며 려명거리건설장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영웅신화들이 창조되고있다.

우리 당의 굴함없는 공격정신으로 심장의 피를 끓이며 용틀림, 용데진해가는 전체 건설자들의 불붙뛰는 전투로 하여 수심개호등의 살림집골조공사가 결속되고 교육시설들을 비롯한 공공건물공사에서도 자랑찬 성과들이 다계단으로 이룩됨으로써 현대적인 새 거리의 웅장한 면모가 드러나게 되였다.

당의 령도따라 높은 반제계급의식을 지니고 승리의 력사와 전통을 영원히 빛내여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필승의 기상을 과시하며 중앙계급교양판이 반제계급교양의 거점으로 새로 꾸려져 개관되였다.

우리 인민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것을 더 많이, 더 빨리 안겨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구상과 념원을 눈부신 현실로 펼쳐갈 전설자들의 충정의 마음에 떠받들려 자연박물관과 중앙동물원이 보란듯이 일떠섰다.

수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후대사랑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평양중등학원을 세상에 들도 없는 멋쟁이궁전으로, 중등교육환경의 본보기로 훌륭히 건설하였다.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새 력사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현대적인 류경안과종합병원과 보건산소공장이 빠른 속도로 일떠서고있다.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장을 비롯하여 중요건설전투장들에서도 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고있다.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인 농업전선에서 온 나라의 힘있는 지원속에 200일전투시작부터 기세를 올리고있다.

한해 농사에서 모내기가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명심하고 영농전투에 떨쳐나선 농업근로자들과 지원자들의 드높은 열의와 헌신적노력속에 각지의 협동농장들에서 벼모내기가 적기에 질적으로 끝났다.

뜻깊은 올해에 앞그루작물농사에서부터 통장훈을 부를 일념으로 평양시, 황해남북도, 평안남북도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짧은 기간에 봄밀보리수확을 결속하였다.

수산부문의 로동계급이 파감한 어로전으로 물고기잡이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바닥수산이자 물고기잡이실적이라는것을 자각한 신포원양수산련합기업소, 함경북도, 평안북도수산관리국의 어로공들은 위성정보를 리용하여 수시로 변동되는 어황상태를 제때에 장악하고 어장마다에서 집중투망, 련속투망을 들이대여 계획보다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

협동수산관리국의 어로공들도 선군시대 《이채어경》을 끊임없이 펼쳐 황금해의 력사를 빛내여갈 의지로 심장을 불태우며 기망탕어획량을 늘이고 고기배들의 가동률을 최대한 보장하여 관리국적인 전투목표를 넘쳐 수행하였다.

경공업성적인 공업총생산액계획이 120%로 완수되였다.

방직실과 일반천, 뜨개옷, 양말생산전투목표가 성과적으로 수행되고 년간계획, 2년분 계획완수자대렬이 계속 늘어나고있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 9월방직공장의 로동자들은 다추, 다기대운동을 힘있게 벌리고 집단주의미풍을 발휘하며 동무는 만리마를 탔는가라는 시대의 물음에 높은 생산실적으로 대답하였다.

세계적수준의 다양한 새 제품개발과 질제고에 힘을 넣고 경쟁열풍을 일으켜온 선교편직공장, 함흥편직공장, 강계편직공장, 평양어린이편직공장과 평양양말공장을 비롯한 편직공업관리국산하 공장들에서 철전투목표를 빛나게 수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지말씀관철에 떨쳐나선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의 로동계급이 월계획을 훨씬 넘쳐 수행한것을 비롯하여 잠업비단공업국적인 생산계획이 130%로 완수되였다.

평양루산공장,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 평양기초식품공장, 대동강식료공장, 평양화장품공장, 신의주화장품공장, 평양일용품공장 등 식료일용공업성산하 공장들에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 성적인 계획수행률을 1.3배로 끌어올리였다.

과학, 교육, 보건, 체육부문에서도 전투승리에 기여하는 커다란 성과들이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이룩되였다.

전투의 첫달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주요전구들에서 이룩된 혁혁한 전과들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200일전투승리의 확고한 담보를 마련한 귀중한 성과로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세련된 령도와 불패의 일심단결이 있고 자강력제일주의가 백동치는 한 점령 못할 요새란 없고 최후승리는 확정적이라는 억척불변의 신념을 피끓는 심장마다에 간직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기세는 더욱 충천해졌다.

당과 수령에 대한 백옥같은 충정과 애국열의로 가슴 불태우고있는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은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높이 200일전투를 대승리로 결속함으로써 사회주의강국에로 비약하는 위대한 김정은조선의 기상과 본때를 온 세상에 힘있게 떨칠것이다.

주체105(2016)년 7월 4일
평 양

수산부문의 앞장에서 기치를 들고 나아갈 드높은 열의

신포원양수산련합기업소 일군들과 종업원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수산단위들에서 고기배와 어구를 현대화하고 첨단과학기술에 기초하여 기상예보, 해상지휘, 물고기가공체계와 설비 및 전력감시체계, 배수리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하며 사철 바다를 비우지 말고 적극적인 어로전을 벌려 물고기대풍을 안아와야 합니다.》

충정의 200일전투에 떨쳐나선 신포원양수산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어로공들이 사회수산부문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며 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련합기업소에서는 과학적인 어로전을 통이 크게 벌려 물고기잡이에서 성과를 거두고있다. 지난 6월 25일까지 상반년 물고기잡이계획을 앞당겨 수행한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어로공들은 수십척의 배들에 대한 수리정비를 빈틈없이 끝내고 먼바다어장으로 진출하였다.

또한 수천t능력의 랭동저장고를 개건하고 물고기통조림공장 현대화공사를 마감단계에서 다그치고있으며 배수리분공장 개건과 4호부두를 현대화하기 위한 투쟁도 통이 크게 내밀고있다.

지난해 5월 선군혁명령도로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신포원양수산련합기업소를 찾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련합기업소가 사회수산부문에서 기치를 들고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나아갈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과 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과업을 높이 받들고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어로공들은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모범을 따라 련합기업소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갖추며 물고기잡이에서 일대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자기들의 일터에 모시였던 크나큰 긍지를 안고 김형범, 리재경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도당위원회와 수산성의 지도방조밑에 련합기업소를 사회수산부문의 본보기로 꾸리기 위한 높은 목표를 세우고 작전과 전투지휘를 통이 크게 해나가고있다. 일군들은 배수리분공장개건전투장과 4호부두현대화공사장, 선박들에 나가 제기되는 문제들을 솔선 앞채를 메고 풀어나가고있다.

련합기업소에서는 충정의 200일전투기간에 배수리분공장개건과 4호부두현대화공사를 끝낼 목표를 세우고 힘있게 내밀고있다. 한달도 채 안되는 기간에 배수리분공장의 면모가 일신되였으며 수백m의 배올림대가 정비보수되였다. 이미 있던 4호부두를 통채로 들어내기 위한 전투와 500어래의 부재를 생산하기 위한 전투가 치렬하게 벌어져 성과가 확대되고있다. 련합기업소아래 양화수산사업소, 흥원수산사업소에서도 부두를 개건확장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배수리분공장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닦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있다.

련합기업소에서는 첨단과학기술에 기초한 통합생산체계를 구축해놓고 과학적인 어로방법을 받아들여 물고기잡이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김책공업종합대학의 교원, 연구사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첨단과학기술에 기초한 기상예보, 어장탐색, 물온도전송, 해상지휘, 랭동 및 전력감시, 배수리 등이 하나로 결합된 통합생산체계를 구축해놓았다. 이와 함께 련합기업소(모체)와 양화수산사업소에 과학기술보급실을 새로 꾸리고 일군들과 어로공들의 과학기술수준을 높이는데 힘을 넣고있다.

리철호, 리영철동무를 비롯한 련합기업소참모부의 일군들은 통합생산체계가 온을 내도록 새로운 어로방법을 대담하게 받아들이고 전투조직과 지휘를 바로하여 여름철물고기잡이에서 혁신이 일어나게 하고있다. 련합기업소(모체)의 1267호와 흥원수산사업소의 114호를 비롯한 여러 고기배들의 어로공들은 련판단위와 함심하여 새로운 어군탐지기를 설치하고 과학적인 어로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정어리잡이에서 전례없는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글 특파기자 박동석
사진 본사기자 김광혁

화력발전소에 보내줄 뽈생산계획 130%로 넘쳐 수행

만경대공작기계공장 사동주물분공장에서

전력문제해결에 국가적인 힘을 집중할데 대한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200일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만경대공작기계공장 사동주물분공장의 로동계급이 전달 27일까지 화력발전소들에 보내줄 6월 석탄분쇄용뽈생산계획을 130%로 넘쳐 수행하는 자랑을 떨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력문제해결에 국가적인 힘을 집중하여야 하겠습니다.》

공장분초급당위원회에서는 전력증산에서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과 의의를 모든 종업원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주기 위한 정치사업을 방법론있게 진행하였다. 특히 전투속보발간과 궁정자료통보, 혁신자축하모임 등을 일별로 의의있게 진행하여 종업원들의 생산열의를 부쩍 높여주었다.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기적이 창조되는 만리마시대인 오늘날 순간의 안일과 해이, 침체와 탐보도 허용될수 없다는것을 자각한 공장일군들은 6월생산계획을 앞당겨 끝낸 높은 목표를 세우고 전투조직과 지휘를 진공적으로 해나갔다. 해당 부문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공급되는 전력을 최대한 효과있게 리용하여 생산성과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었다. 특히 뽈생산에 리용할 주철, 규사와 점토 등 부족되는 자재들을 자체의 힘으로 제때에 해결하면서 생산이 중단없이 추진되게 하였다. 자력자강의 정신을 발휘하여 꾸려놓은 생산기지가 더 큰 온을 내도록 함으로써 유도로에 장입되는 각이한 크기와 형태의 원료에 대한 절단작업이 원만히 수행되도록 하였다.

공장의 로동자들이 인민경제의 생명선을 함께 지켜갈 불타는 열의에 넘쳐 200일전투시작부터 뽈생산성과를 부단히 확대하였다.

용해직장의 로동계급이 혁신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렸다. 직장장 김영철동무와 용해공들인 엄승하, 최명철, 박경수동무들을 비롯한 로동자들은 불굴의 정신력으로 수백℃에 달하는 유도로안에 서슴없이 뛰여들어 결사적인 전투를 벌림으로써 로보수기일을 종전보다 2일간이나 앞당기고 뽈증산의 돌파구를 열어놓았다. 생산도중 뜻하지 않게 유도로뒤전반이 고장났을 때에는 지배인 장순철동무를 비롯한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이 치렬한 전투를 벌려 8시간만에 로의 동음을 다시 울려나갔다.

주물직장의 전투원들은 동무는 오늘전투계획을 수행하였는가라는 애국의 물음을 스스로 제기하고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들면서 그날 생산계획은 그날로 어김없이 수행하였다.

자재보장부문의 종업원들은 싸우는 고지에 포탄을 실어나르는 심정으로 시간을 분과 초로 쪼개가며 어려 고급속사업소들과의 긴밀한 협동밑에 종전에 비해 파철수송량을 2배로 늘이였다.

그리하여 공장에서는 6월 뽈생산계획이 21일까지 앞당겨 수행되였으며 지금까지 계획보다 수십t의 뽈을 더 생산하여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를 비롯한 여러 화력발전소들에 보장하는 위훈을 창조하였다.

공장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뽈생산전투가 긴장한 속에서도 려명거리건설에 필요한 큰 30대의 전동기본체주물품생산도 제기일내에 높은 질적수준에서 끝내였다.

지금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만리마의 속도로 내달리는 시대의 벅찬 숨결에 발맞추어 200일전투목표를 기어이 앞당겨 수행하고 승리자의 영예를 빛내일 각오밑에 증산투쟁을 더욱 과감히 전개하고있다.

심학철

많은 젖과 가공품을

각지 목장, 축산전문협동농장들에서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각지 목장, 축산전문협동농장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풀먹는짐짐승을 많이 길러 축산물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이들은 충정의 200일전투가 시작되여 한달동안에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젖은 1.3배, 젖가공품은 1.2배 더 생산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산이 많은 우리 나라에서는 어데서나 염소, 토끼를 비롯한 풀먹는짐짐승을 많이 기를수 있습니다.》

각지 목장, 축산전문협동농장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축산물생산을 늘일데 대한 당 제7차대회 결정을 결사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였다.

함흥시청년염소목장에서 풀먹는짐짐승들을 더 많이 길러 위대한 장군님께서 목장을 찾으시여 주신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였다.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지대적특성에 맞는 우량품종의 염소마리수를 늘이면서 여러가지 설비들을 더욱 현대화하였다. 이와 함께 약초들로 여러가지 약을 만들어 리용함으로써 염소들이 병에 걸리지 않게 하였다.

그리하여 치즈, 빠다를 비롯한 젖가공품생산을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2배로 늘이였다.

황해남도 계남목장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젖생산량이 많은 우량품종의 염소마리수를 많이 늘이고 사양관리를 개선함으로써 풀먹는짐짐승들을 대대적으로 기를데 대한 우리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힘있게 시위하였다.

그들은 낮기온이 올라가는데 맞게 아침 6시부터 이동방목을 하다가 10시가 지나면 물이 흐르고 나무숲이 있는 곳에서 염소들을 휴식시키였다. 오후에는 3시이후부터 이동방목을 하여 염소들이 더위의 영향을 받지 않게 함으로써 마리당 젖생산량을 늘이였다.

혁신의 불길은 청진염소목장에서도 세차게 타올랐다. 목장에서는 염소들의 크기에 따라 무리를 짓고 모든 방목공들이 맡은 염소방목을 책임적으로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동방목지에 싸리나무와 개암나무, 아카시아나무가 많은 유리한 조건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도록 하였다.

방목공들은 지연풀판과 인공풀판들의 풀량을 보아가면서 순환식으로 염소를 방목하여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젖생산을 1.3배로 늘이였다.

강동군 구빈축산전문협동농장의 일군들도 풀먹는짐짐승들을 많이 길러 축산물생산을 늘일데 대한 당정책관철에로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키였다.

특히 농장에서는 젖소들의 우리를 풀관가까이에 건설하여 방목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젖생산을 늘이기 위한 사회주의경쟁운동을 조직하여 방목공들의 열의를 높여주었다.

방목공들은 젖소가 새끼를 낸 때부터 일정한 기간 영양가높은 풀을 먹이면서 사양관리에 품을 들여 젖생산을 지난 시기보다 1.5배로 늘이였다. 또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생산된 젖을 제때에 가공하여 해당 단위들에 보내주었다.

강동군 관산, 태잠, 송석, 문화 축산전문협동농장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염소젖생산을 늘이면서 가공품생산을 따라세웠다.

강계목장과 황해북도 은정축산전문협동농장, 김책시 상평축산전문협동농장을 비롯한 다른 목장, 축산전문협동농장들에서도 염소마리수를 늘이고 젖과 가공품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성과를 거두었다.

지금 각지 목장, 축산전문협동농장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축산물생산을 더욱 늘이는것으로 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리고있다.

본사기자 김창길

경공업공장들에 수백t의 유휴자재 지원

평안북도의 근로단체조직들에서 최근 근 400t의 유휴자재를 수집하여 신의주시안의 경공업공장들에 보내주었다.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에 떨쳐나선 도안의 청년동맹, 녀맹조직들에서는 경공업공장들의 생산정상화를 위한 유휴자재수집목표를 통이 크게 세우고 동맹원들을 이 사업에로 적극 불러일으켰다.

일군들은 유휴자재수집사업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대중속에 깊이 인식시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는 한편 시, 군별로 수집정형을 료해장악하고 총화평가사업을 잘하여 동맹원들의 열의를 더욱 높여나갔다.

청년들을 청년강국의 주인으로 내세워준 당의 크나큰 믿음을 심장에 새기고 평북종합대학, 차광수신의주제1사범대학을 비롯한 신의주시 여러 단위의 청년동맹원들은 짧은 기간에 수십t의 유휴자재들을 모아 경공업기지들에 보내주어 생산자들을 고무하였다.

동창, 창성, 대관군청년동맹위원회의 일군들이 혁명군대의 지휘관들처럼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을 이끌면서 유휴자재수집사업을 군중적운동으로 활발히 전개하였다.

인민생활문제를 천만가지 국사가운데서 제일국사로 내세우고있는 당의 의도를 깊이 새기고 룡천, 벽동군의 청년동맹원들은 한사람같이 떨쳐나 수집한 수많은 유휴자재들을 경공업공장들에 보내주었다.

녀맹조직들에서도 유휴자재수집사업이 힘있게 벌어졌다.

부강조국건설에 이바지해갈 애국의 마음안고 신의주, 정주, 구성시의 녀맹원들은 일터와 가정들에서 한g의 유휴자재라도 더 수집하기 위해 애써 노력하였다.

운산, 염주, 향산, 태천, 선천군 녀맹조직들에서는 일군들이 조직사업을 짜고들어 짧은 기일내에 이 사업에서 큰 성과를 이룩하였다.

도안의 청년동맹원들과 녀맹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고무된 경공업공장들의 로동계급은 더 높은 생산적앙양을 일으킬 열의밑에 증산의 동음을 세차게 울려가고있다.

본사기자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기풍이 전당에 차넘치게 하자

만짐을 지고 발이 닳도록 뛸 때

차가평세멘트공장 초급당위원회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보고에서 당일군들과 당원들은 당의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뜻을 심장에 새기고 인민앞에 무한히 겸손하여야 하며 생눈길을 앞장에서 헤치면서 인민이 바라는 일, 인민이 력을 볼수 있는 일을 한가지라도 더 찾아하는 인민의 참된 충복이 될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지금 전당의 당일군들속에서는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위해 발이 닳도록 뛰는 헌신적인 사업기풍이 높이 발휘되고있다. 그들속에는 조국의 북변 압록강기슭에 자리잡고있는 차가평세멘트공장 초급당위원회 일군들도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숭고한 애국관과 헌신의 각오를 가지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멸사복무하여야 하며 스스로 무거운 짐을 맡아지고 대중의 앞장에서 뛰고 또 뛰여야 합니다.》

차가평세멘트공장은 힘있는 공장, 제힘으로 흥하는 공장으로 도적으로 잘 알려져있다.

그것은 몇해이간에 공장이 백두산영웅청년1, 2호발전소건설장과 묵부철길개건보수공사장을 비롯한 국가적인 중요대상건설장들과 70일전투기간 도육아원, 애육원건설장, 배움의 천리길학생소년궁전건설장을 비롯한 도의 중요건설장들에 세멘트를 원만히 생산보장한 사실들을 놓고도 알수 있다.

하다면 이런 성과의 밑바탕에는 무엇이 깔려있는가.

초급당위원장 김정국동무의 사업년한은 길지 않다.

하지만 그 길지 않은 나날에 그는 공장의 후방토대를 개선하고 종업원들의 생활을 안착시키기 위한 사업에서 많은 일을 해놓았다.

공장의 세멘트생산을 위한 크고작은 문제들을 당적으로 적극 밀어주면서 종업원들의 후방사업개선을 위해 성, 중앙기관들과 도의 많은 단위들, 공장의 후방기지들과 로동자들의 살림집들, 멀리 떨어져있는 축산기지에 이르기까지 그가 걸은 길은 얼마인지 모른다.

하나의 실례가 있다.

종업원들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생산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자면 결정적으로 종업원들의 먹는 문제와 땔감문제를 원만히 해결해야 하였다. 그런데 공장은 압록강을 끼고있어 부업지도 늘일수 없는 불리한 조건이였다. 하지만 초급당일군은 당정책의 요구대로 림농복합경영방법을 받아들이면 얼마든지 부업생산물을 늘여 종업원들의 식생활에 도움을 줄수 있다고 보았다.

초급당일군은 도의 산림경영부문의 일군들을 찾아 출장길에도 나섰고 해당 일군들과 함께 산판을 발이 닳도록 뛰여다니였다. 그리하여 지난해 공장에서는 림농복합경영방법을 받아들여 수십t의 콩을 생산함으로써 영양제식당, 합숙은 물론 세대들에도 공급되게 하였다.

종업원들의 땔감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도 초급당일군은 남모르는 헌신의 길을 걸었다. 공장의 세멘트생산을 늘이는것과 함께 종업원들의 땔감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면 수백리밖에 있는 개천지구의 탄광들에서 석탄을 실어들여야 했다. 그런데 공장일군들은 철도성에서 화차수송조직을 해주기만을 바라면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아 세멘트생산은 물론 종업원들의 땔감문제해결에 적지 않은 지장을 주고있었다.

이때에도 초급당일군은 수백리길을 달려 철도부문의 여러 단위들을 찾아가 힘있는 정치사업과 후방사업으로 그곳 일군들과 로동자들의 심장을 울리였다.

그리고는 자신이 직접 화차를 타고 주먹밥으로 끼니를 에우며 화차수송을 원만히 보장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긴급한 석탄수송을 위한 대책이 취해져 세멘트생산과 종업원들의 땔감문제가 풀리게 되였다.

먹는 문제, 땔감문제보장만이 아니다.

주민들의 물문제해결에서도 초급당일군은 헌신적복무정신을 높이 발휘하였다. 사실 세검동의 일부 주민들이 물문제로 애로를 느끼고있다는것을 알고 즉시 수도공사를 하자고 하였을 때 일부 일군들속에서는 의견이 없지 않았었다.

생산이 바쁜 때 어려운 고비나 넘기고 보자는 의견도 있었고 해당 부문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할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종업원들을 위해 한몸을 바치려는 초급당일군의 드팀없는 결심을 돌려세울수 없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일군들에게 본공을 구체적으로 주고 일별, 주별일군모임에서 나타난 긍정적사실들을 통보도 해주고 철함도 바로잡아주면서 모든 일군들이 진정한 인민의 심부름군으로서 맡은 일에서 실적을 내도록 사상교양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였다.

이 나날 수도공사를 진행하여 일부 주민들의 물문제를 해결한것을 비롯하여 초급당위원회일군들이 걸은 헌신의 길에 대한 이야기는 많다.

오늘 공장에 가면 구내길에 설치된 야외불장식등들, 번뜻하게 꾸려진 축산토대들과 함께 종업원들에게 배달 고기를 비롯한 갖가지 부식물들을 떨구지 않고 정상공급하는것을 볼수 있는데 바로 여기에는 한 건설기술자의 생활로부터 축산기지의 나어린 처녀사양공의 생활에 이르기까지 종업원들을 따뜻이 보살펴주며 더 많은 일을 해나가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준 초급당위원회일군들의 남모르는 헌신의 발자욱이 진하게 새겨져있다.

초급당위원회일군들이 종업원들을 위해 바치는 헌신적인 사업기풍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200일전투에서 높이 발휘되고있다. 지금 초급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공장에서는 종합편의봉사시설건설과 소총이빠트건설이 본격적인 단계에서 추진되고있다.

공장이 거두고있는 모든 성과는 바로 종업원들의 생활을 당앞에 전적으로 책임졌다는 자각, 그 길에서 불가능이란 없으며 하늘이 무너진다고 해도 두발을 떼치고 당정책을 끝까지 관철해야 한다는 결사관철의 정신, 멸사복무의 정신이 안아온 소중한 열매들이다.

사무실에 앉아 로동자들의 생활상문제를 묻건으로나 료해하고 지시하는 일군이 아니라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현실속에 들어가 걸린 문제를 풀기 위해 발이 닳도록 뛰여다니는 이런 어머니당일군들이 있어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 로동당민제소리가 더 높이 울리는것이다.

본사기자 최영길

현실에서 걸린 문제를 풀어주어

조양탄광 초급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일군들이 인민을 위해 참답게 복무하자면 대중의 목소리에서 일감을 찾을줄 알아야 한다.

조양탄광 초급당위원회 일군들이 그렇게 일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인민의 요구, 대중의 목소리에 무한히 성실하여야 하며 언제나 인민을 위해 헌신하는 인민의 참된 심부름군으로 살며 일하여야 합니다.》

지난 2월말 초급당위원장 윤재범동무가 이미 착공했던 3층 영양제식당건설을 와닥닥 끝내기 위한 협의회를 열었을 때였다.

일군들은 서로 다른 립장을 표명했다. 70일전투가 끝난 다음 하자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그들을 보는 초급당일군에게는 3층에 나갔을 때 로동자들이 영양제식당이 생가까운 곳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던 말이 떠올랐다. 탄광에서는 지난해 3층의 로동자들을 위해 2층으로 된 생산건물을 새로 건설하였었다. 그런데 부속건물인 영양제식당건설은 착수만 해놓은 상태에 있었다. 그래서 로동자들이 현재 리용하던 영양제식당에서 식사를 하고있었던것이다.

일군들이 대중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하자면 그들의 목소리를 새겨들을줄 알아야 한다고 본 초급당위원회는 70일전투기간에 영양제식당건설을 끝내기로 결정하였다.

그후 건설장을 찾은 초급당위원회일군들은 제기되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였다.

지상단위의 종업원들과 함께 10리 떨어진 림지에 올라가 필요한 목재도 끌어왔다.

어느날 건설장을 찾았던 초급당일군은 미장작업이 처지고있는 사실을 놓고 일군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그 원인의 하나가 추운 겨울에는 작업을 할수 없다는 기존공식에 매달리면서 몸을 내대지 않는 일부 일군들의 그릇된 태도와 관련되여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이런 때 초급당일군은 무조건 해야 한다고 내리먹이는 식으로 일하지 않았다. 로동자들속에 들어가 그들의 사상을 발동하기 위한 정치사업을 앞세웠다. 좋은 안들이 나왔다. 그중의 하나가 작업장에 난로를 설치하고 비닐박막으로 덧씌움을 지어 보온대책을 세운 다음 미장작업을 하자는것이였다. 혁신적인 안이였다. 이렇게 되여 건설장곳곳에 여러개의 난로들이 생겨났다. 기적이 일어났다. 짧은 기간에 200여㎡나 되는 건물의 내외부미장을 끝내는 혁신이 창조되였던것이다.

어느날 한 탄부가정을 찾았던 초급당일군은 안주인으로부터 한겨울에 온실남새를 공급받게 되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는 말을 듣게 되였다. 초급당일군은 그의 말을 무심히 대하지 않았다. 거기서 새로운 일감을 찾았던것이다. 탄광에 남새온실이 여러개 있고 갱마다에도 있다고는 하지만 종업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자면 아직 멀었다고 보았던것이다. 초급당일군은 종업원가족수를 타산해보면서 탄광부업농목장에 500㎡의 남새온실 한동을 더 건설할 궁리를 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일부 일군들이 탄광의 형편을 잘 알고있는 종업원가족들인데 온실남새가 좀 부족하다고 탓할 사람은 없을것이라고 하였다.

그때 초급당위원장이 일군들에게 한 말은 얼마나 준절했던가.

《우리 일군들은 언제나 대중의 목소리에서 일감을 찾을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일군은 사실상 일군자격이 없습니다. 종업원들과 가족들이 요구하는것이라면 돌우에도 꽃을 피워야 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나갑시다.》

이렇게 되여 또 한동의 남새온실이 일떠섰다. 온실면적이 늘어나니 그만큼 생산량도 늘어났다.

대중의 목소리에서 일감을 찾아야 그들이 바라는 절실한 문제를 풀수 있고 대중을 위해 좋은 일을 한가지라도 똑똑히 해놓을수 있다는것을 이곳 초급당위원회사업은 잘 보여주고 있다.

본사기자 손영희

여섯세대를 위해 열린 협의회

린산군당위원회 일군들

우리 당의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린산군당위원회 일군들이 멸사복무의 자욱을 뚜렷이 새겨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선로동당의 진모습은 당이 꾸려놓은 조국의 모습에 있고 언제나 행복에 겨워있는 인민의 모습에 있습니다.》

지난 3월말 어느날 밤이였다.

린산군당위원회에서 긴급협의회가 열리게 되였다.

군당청사로 향하는 여러 단위당, 행정책임일군들은 방대한 70일전투목표수행을 위한 긴급과제가 제기된 모양이라고 생각하고있었다.

그런데 그들의 예상은 빗나갔다. 그들을 기다린것은 정화농장의 여섯세대 농업근로자들의 생활을 안착시키는 문제였다.

그날 뜻밖의 화재로 하여 그 농장의 여섯세대가 재난을 당하였었다. 지체없이 화재현장을 돌아보고 주민들을 림시 안착시키도록 한 군당위원장 라정수동무는 집을 잃은 그들의 살림집들을 10일동안에 보다 훌륭하게 일떠세워줄 결심을 하였던것이다.

물론 10일동안에 살림집들을 건설한다는것은 당시의 형편에서는 간단한 일이 아니였다.

군적으로 벌려놓은 일, 추진하는 일들이 그야말로 허다했던것이다.

모두의 심정을 헤아린 당책임일군은 사무실벽면에 정히 모셔져있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제의 참뜻을 상기시켜주었다. 우리모두 위대한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해나아가자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호소를 다시금 일군들에게 심장깊이 새겨주고나서 그는 말하였다.

《어려운 조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큰물피해를 입은 라선땅에 전화위복의 기적을 안아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심장에 새기면됩니다. 우리가 땀을 더 흘려 불행을 당한 농업근로자들이 어떻게 하나 태양절을 본래보다 훌륭한 살림집에서 맞이하게 합시다!》

협의회에서 일군들은 멸사복무라는 네글자에 담겨진 심원한 뜻을 어떤 자세와 립장에서 받들어야 하는가를 다시금 절감하였다.

전투는 그밤부터 시작되였다.

건축형식에 있어서나 쓸모에 있어서 이전의것과는 대비도 되지 않게 훌륭한 1동 2세대짜리 살림집들을 불과 10일동안에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에서 군당위원회일군들이 앞재를 메였다. 김은룡동무를 비롯한 당책임일군들은 사업이 바쁜 속에서도 살림집건설전투장에서 새날을 맞으며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면서 살림집건설을 추진시켰다. 부부장 박영수, 과장 김동식동무를 비롯한 각 부서 일군들은 직접 축조도 하고 미장도 하면서 불같은 헌신으로 건설자들을 이끌었다. 그들의 모범을 따라 군인민위원회를 비롯한 각 단위 일군들과 건설자들이 림체전을 벌리면서 열흘낮, 열흘밤을 헌신과 위훈으로 수놓아갔다.

마침내 군당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10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살림집들이 원래자리에 번듯하게 일떠섰다.

군의 일군들은 세간난 자식을 생각하는 친부모의 심정으로 새 살림집들에 보근한 이불로부터 부엌세간에 이르기까지 그뜬히 갖추어주도록 하였다.

태양절을 앞둔 지난 4월 10일, 온 군의 관심속에 정화농장에서 새집들이가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인민사랑이 여기 린산땅에도 펼쳐졌습니다.》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하는 참된 어머니당일군들을 키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꿈같은 현실앞에서 격정의 목소리를 터치며 감사의 눈물을 걷잡지 못하는 농업근로자들의 모습은 그대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 당의 품에 안긴 우리 인민의 행복한 모습의 축도였다.

본사기자 리정수

참된 동지, 전우로 여기고

청진청년역 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후방사업을 통이 크게 작전하고 환강하게 밀고나가고있는 청진청년역 초급당위원회의 사업에서 주목되는 점이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공장, 기업소 기층당조직들은 대중의 정신력과 과학기술, 후방사업을 기본고리로 틀어쥐고 자강력을 키워 생산정상화의 동음을 높이 울려야 합니다.》

지난해 봄 초급당위원회가 후방기지를 통이 크게 건설할 목표를 제기하였을 때였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머리를 기웃거리였다. 그럴만도 하였다.

이전에도 후방기지는 있었다. 불품없는 비닐재배장, 10여마리의 집짐승들로 현상유지나 하고있는 축사, 자그마한 면적의 남새온실…

너무도 빈약한 후방토대였다. 그러니 종업원들이 얼마나 종업원들이 덕을 보게 하여야 한다. 종업원들을 혁명동지, 혁명전우로 여기고 나설 때에라야 후방사업에서도 성과를 거둘수 있다. …

초급당위원장 최창호동무의 호소는 역일군들을 분발시켰다.

이렇게 되여 후방토대를 튼튼히 다지기 위한 사업이 새로운 높이에서 벌어지게 되였다. 지영철, 리정림, 김성일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이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확립하여 농축산물생산에서 비약을 일으킬 목표를 내세우고 떨쳐나섰다.

앞선 단위들의 성과와 경험을 따라배우기 위한 사업이 면밀히 작전되고 힘있게 전개되였다.

로력도 긴장하고 건설자재들도 부족하였다. 하지만 일군들은 후방토대축성을 단순히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당정책의 정당성을 대중의 심장속에 깊이 심어주기 위한 중요한 정치적 덕을 보았겠는가.

그런것으로 하여 덕을 보지 못할바에는 일관을 벌려놓을 필요가 있겠는가고 만신반의하였던것이다.

후방사업은 형식이나 차리고 체면이나 세우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다. 한가지를 하여도 종업원들이 덕을 보게 하여야 한다. 종업원들을 혁명동지, 혁명전우로 여기고 나설 때에라야 후방사업에서도 성과를 거둘수 있다.

초급당위원장 최창호동무의 호소는 역일군들을 분발시켰다.

이렇게 되여 후방토대를 튼튼히 다지기 위한 사업이 새로운 높이에서 벌어지게 되였다. 지영철, 리정림, 김성일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이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확립하여 농축산물생산에서 비약을 일으킬 목표를 내세우고 떨쳐나섰다.

앞선 단위들의 성과와 경험을 따라배우기 위한 사업이 면밀히 작전되고 힘있게 전개되였다.

로력도 긴장하고 건설자재들도 부족하였다. 하지만 일군들은 후방토대축성을 단순히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당정책의 정당성을 대중의 심장속에 깊이 심어주기 위한 중요한 정치적 문제로 보고 힘있게 밀고나갔다.

청년들로 돌격대가 조직되고 건설이 집중적으로 벌어졌다. 그리하여 짧은 기간에 수백마리의 집짐승을 기를수 있는 돼지우리, 닭우리와 남새온실이 일떠서고 비닐재배장이 큼직하게 꾸려지게 되였다. 지하에는 메탄가스탕크가 건설되고 그우에는 수백마리의 통정어들이 자라는 양어장이 꾸려졌다.

후방기지가 건설된지 얼마되지 않지만 종업원들은 벌써 덕을 보기 시작하였다.

비록 크지 않은 후방기지이지만 집약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되여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감탄을 금치 못한다.

지금은 어느 단위에나 후방기지가 있다. 그런데 종업원들이 보는 덕에서는 왜 차이가 나는것인가.

그 원인은 다른데 있지 않다. 종업원들에 대한 당책임일군들의 관점과 립장에 있다. 종업원들을 참된 동지, 진정한 전우로 여기고 그들을 위해 한몸을 바칠 때만이 온이 나게 되는 법이다.

청진청년역에서의 후방사업은 시작에 불과하다. 지금 그들은 보다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그 관철을 위해 지혜와 열정을 바쳐가고있다.

본사기자 김승표

당 제7차대회 과업관철에로 종업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평양목재공장에서— 본사기자 리동규 찍음

이채로운 온실풍경과 실리

숙천군남새온실농장에서

야외에서도 남새생산이 잘되는 여름철에 부디 온실남새재배에 힘을 넣을 필요가 있는가.

온실에서의 고온현상을 어떻게 극복할것인가.

적지 않은 단위, 사람들의 이런 의문에 대답을 주는 이채로운 온실풍경이 있다.

숙천군남새온실농장의 온실박막우에 호박넌출이 덮인 풍경이다.

농장에서는 지난해 온실박막우에 호박넌출을 덮어주면서 여름철남새온실운영을 잘 함으로써 같은 면적의 야외조건에서보다 몇배나 많은 열매남새를 생산한 경험에 토대하여 올해에도 이 사업에 특별히 큰 힘을 넣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축산을 적극 발전시키고 온실남새와 버섯재배를 대대적으로 하여 더 많은 고기와 남새, 버섯이 인민들에게 차례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농장에서도 두해전까지는 여름철에 온실박막을 통채로 벗겨놓군 하였다. 이렇게 하니 비바람에 의한 피해를 세게 받았고 습도가 높아져 작물들이 쉽게 뿌리썩음병에 걸려 생산실적이 시원치 못했다.

남새온실을 비우지 말고 사철 신선한 남새를 생산하라는것은 우리 당의 뜻이 아닌가.

농장의 일군들이 자각하고 분발해나섰다.

그러던 어느날 지배인 성순실동무는 호박넌출이 보기 좋게 한벌 덮이고 큼직한 열매들까지 달려있는 어느 한 집지붕밑에서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번쩍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박막우로 호박넌출이 퍼지게 해준다면…)

모두가 그의 착상을 지지해나섰다.

이렇게 되여 농장에서는 이 사업을 놓치지 않고 지난해 4월말 호박씨를 뿌리고 5월 중순경에는 3개 호동의 온실바깥벽의 경사면웃목을 따라 모를 옮겨심었다. 그리고 호박넌출이 박막의 정점에서부터 절반정도까지 내리드리웠을 때 순치기를 하도록 하였다. 그렇게 하니 넌출들이 옆으로 왕성하게 퍼져나가며 박막우를 퍼렇게 뒤덮었다.

이때 농장일군들이 특별히 주의를 돌린 문제가 있다.

호박으로 하여 비닐박막이 손상되지 않게 하는 문제였다. 이를 위해 농장에서는 우선 호박이 열리기 시작할 때 매 열매밑에 바침으로 만든 받치개를 놓아주고 박막안쪽으로는 덕대도 매주었다. 또한 호박 한개의 무게가 2㎏넘지 않게 제때에 따주군 하였다.

생각했던것보다 결과는 더 좋았다.

우선 호박넌출로 하여 해빛이 차단되니 좋았다. 실질적으로 온실안의 온도가 3-5℃나 내려갔던것이다. 지난해 여름 농장에서는 온실박막의 웃부분에는 호박넌출을 덮어주고 아래부분은 자주 걷어올려주면서 환경관리를 과학적으로 잘해준 결과 그 전해 같은 시기에 비해 5배 더 많은 온실남새를 생산하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또한 온실공간을 효과있게 리용하니 실리있었다. 지난해 3동의 온실박막우에서 7, 8월 두달동안 1t이 넘는 호박을 수확하였는데 여기서 얻은 리득금만 해도 적지 않았다고 하니 이 또한 얼마나 좋은 일인가.

온실풍경이 이채로와진것 역시 자랑할만 한 또 한가지 좋은 점이였다.

이 나날 그들은 다시금 새삼스럽게 깨달았다.

주관적욕망이나 열성만으로는 어떤 일도 잘할수 없다. 당정책관철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안고 끊임없이 사색하고 탐구할 때 성공의 열쇠, 비약의 지름길이 마련된다.

지금 농장의 큰 20동 되는 모든 온실박막우에는 호박넌출이 보기 좋게 덮여있으며 호박따기도 진행되고있다.

품들여 건설한 남새온실들이 사철 큰 은을 내게 할 드높은 자각안고 끊임없이 사색하고 실천하며 충정의 200일전투를 파감히 벌려가는 이들이 안아올 올해의 온실남새작황은 또 얼마나 흐뭇할것인가.

본사기자 장은영

영광의 일터에서 일하는 긍지를 안고

함흥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에서

지난 7월 1일 아침 함흥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의 종업원들은 약속이나 한듯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지교시판 교양마당앞에 모여들었다.

《어버이수령님,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그토록 아끼고 보살펴주시던 우리 영예군인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으신 뜻을 받들어 200일전투의 첫달계획을 넘쳐 수행하였습니다.》

이날 영예군인들은 잊지 못할 영광의 그날을 되새기며 충정과 의리로 이어온 지난날을 감회깊이 돌이켜보았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수령님은 혁명가적풍모에 있어서나 인간적풍모에 있어서나 그 누구도 견줄수 없는 위인중의 위인이시다.》

주체56(1967)년 6월 13일 꼼절에도 그리던 어버이수령님을 공장에 모시게 된 영예군인들은 너무 기뻐 어쩔줄 몰라하였다. 수지일용품전문생산기지로 전변된 공장을 몸소 찾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영예군인들의 생활조건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면서 이들이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당과 조국을 위하여 일을 잘하였다고 지난 치하해주시였다. 그러시면서 생산에서도 계속 혁신을 일으키고 학습도 잘하고 예술소조활동도 잘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영예군인들의 모범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시며 전체 종업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자고 하시는것이였다.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촬영장으로 나오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뒤줄에 서있는 영예군인들의 안해들을 보시며 그처럼 수고하는 영예군인들의 안해들인데 이들을 앞줄에 세워 사진을 다시한번 찍자고 하시며 영광의 기념사진을 몸소 한자리에서 두번이나 찍어주시는 전설같은 사랑을 안겨주시였다.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잊을수 없는 그 사랑, 그 은정속에 혁명의 꽃을 활짝 피우며 이곳 영예군인들은 자기 희망과 포부에 따라 함흥화학공업종합대학에 입학하여 배움의 나래도 더 활짝 펼치였으며 유능한 기사로, 침단돌파전의 명수로 자라나게 되였다. 위대한 사랑과 믿음에 대한 보답의 일념안고 신재컬동무를 비롯한 공장의 영예군인들은 전력, 품질, 로력과 계획 등 공장의 모든 공정들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하는 통합생산관리체계를 자체의 힘으로 구축하는 성과도 이룩하였다.

절세위인들의 손길아래 끊임없이 강화발전된 이 공장은 200일전투의 시작을 알리는 장엄한 포성이 울리자 더욱 세차게 끓어번졌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지배인 허성철동무를 비롯한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나가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심장에 새기고 수령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으로 가슴을 불태우며 생산적앙양을 일으켜나가고있다.

리광수, 김명옥동무를 비롯한 가방직장의 전투원들은 매일 수백개의 학생가방생산에서 혁신을 가져오고있으며 장병호동무를 비롯한 어느 한 작업반성원들은 명제품들을 더 많이 생산할데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독이 짧은 장화를 명제품수준에로 끌어올리는데 자기들의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나가고있다.

이들뿐이 아니다. 200일전투의 나날에 비옷직장의 리철남, 권성국, 서호찬동무들은 새로운 구명조끼형태들을 제작하는 성과도 이룩하였다.

날이 갈수록 더해만지는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안고 충진군의 하루하루를 충정과 의리로 불같이 이어가고있는 공장의 영예군인들.

오늘도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업적이 깃든 영광의 일터에서 혁명의 꽃을 더 활짝 피워가며 진군의 발구름소리를 힘차게 울려가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경철

당중앙과 사상도 숨결도 발걸음도 함께 할 신념과 의지

당과 운명의 피줄을 잇고 심장을 불태우리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 4직장 로동계급

보람찬 70일전투의 나날 자랑스러운 로력적위훈을 세운 전형단위로 어머니당에 크나큰 기쁨을 드리였던 그 기세, 그 기백으로 당 제7차대회 과업관철을 위한 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선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 그 미더운 대오속에 4직장의 로동계급도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최후승리에 대한 확신과 튼튼한 믿심을 가지고 대담한 공격전, 전인민적인 결사전을 벌려 기어이 인민의 만복이 꽃피나는 사회주의경제강국을 일떠세워야 하겠습니다.》

총정의 200일전투가 시작되였을 때였다. 14호기 담당기사 최청학동무가 직장의 일군들을 찾아왔다. 그는 품속에서 자그마한 수첩을 꺼내 펼치며 말하였다.

《류류히 생각해보니 보이라의 절탄기용률부위에 관심을 돌려 불량개소들을 제때에 찾아낸다면 효률을 높이는것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사색을 깊이한것이 대번에 알리였다.

사실 200일전투를 앞두고 직장에서 전투목표를 대담하고 통이 크게 내세웠지만 70일전투때의 앙양된 그 기세로 전진하자면 풀어야 할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그래서 직장의 누구나 전력생산문제를 두고 마음을 쓰며 한가지라도 좋은 안을 내놓기 위해 머리를 쓰고 토의를 거듭하고있었다.

어찌 그렇지 않으랴. 당중앙위원회의 뜨락에 운명의 피줄기를 잇고 불보다 뜨거운 심장으로 70일전투의 순간순간을 이어온 자기들을 전형단위의 로동계급으로 내세워주고 뜨거운 은정을 거듭 베풀어주는 당의 크나큰 믿음에 뼈를 깎고 피를 바쳐서라도 기어이 보답하려는 강렬한 열망으로 가슴을 불태우고 있는 직장의 로동계급이였다.

이윽고 직장장이 머리를 들며 말하였다.

《정말 기쁘구만. 또 한고리를 풀었으니 말이요.》

직장의 일군들도, 교대를 마치고 모여온 로동자들도 모두 기쁜 마음으로 최청학동무를 바라보았다. 그러자 최청학동무는 조용히 되이였다.

《우리 호기에 북창용사로 떳떳이 이름을 새긴 동지들의 숨결이 맥박치고있지 않습니까.》

그의 말이 모두의 가슴을 울리였다.

잊을수 없는 동지들인 책임기사였던 김유성, 교대장이였던 최기철동무들의 모습, 그날이 어제런듯 떠올랐다.

그날은 지난 5월 14일, 우리 운명의 찬란한 태양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모신 궁지드높이 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으로 부글부글 끓고있던 직장앞에 14호기 보이라를 세우지 않으면 안되는 정황이 생기였다. 보이라의 효률이 떨어지고있었던것이다. 방도는 한시바삐 슬라크를 제거해야 하는데 그러자면 화실상태를 파악해야 하였다.

그런데 아직은 화실의 온도가 식지 않은 상태였다. 그때 화실로 성큼 들어서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책임기사 김유성, 그뒤를 교대장 최기철동무가 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가.

밖에서 《빨리 나오라!》 하는 소리와 동시에 《쿵—》 하는 소리가 사람들의 가슴을 놀라게 하였다. 화실천정에 붙어있던 커다란 슬라크덩어리가 내려앉았던것이다.

《책임기사동무!》, 《교대장동무!》

얼마후 로동자들의 부축하에 화실밖으로 나온 그들은 병원으로 후송되였으나 끝내 소생하지 못하였다.

당 제7차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기간 당에서 제시한 전력생산목표를 반드시 점령하여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을 뼈에 새기고 현장에서 살다싶이 하던 그들.

그처럼 집단과 동지들의 추억속에 지울수 없는 흔적을 남긴 그들은 진정 직장의 보배들이였다. 당원이 되기를 그토록 열망하던 김유성동무, 당의 크나큰 믿음과 은정속에 조선로동당 당원증이 그의 안해에게 수여되던 날 직장은 물론 온 기업소의 로동계급이 그처럼 살며 생을 빛내일 결의를 다지지 않았던가.

이윽고 초급당일군의 처럭있는 목소리가 울리였다.

《우리 언제나 그들을 잊지 말고 당중앙위원회 축하문에 긍지높이 새겨진 북창용사, 그 이름을 빛내입시다.》

직장의 로동계급은 분발하였다. 현장기술자들과 조작공, 운전공들은 교대간 사회주의경쟁의 불길높이 증산총돌격전에 박차를 가하였다.

열번 확인, 한번 조작!

직장의 모든 호기들마다에서 늘 이런 목소리들이 울려나왔다.

모든 호기의 기술자, 기능공들이 총정의 200일전투에서 또다시 영예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 설비관리, 기술관리에 뜨거운 마음을 기울이였다.

어느날 새벽 현장을 돌아보고있던 교대장 김태순동무는 걸음을 바꾸어 조작공들의 일터로 향하였다. 그에게는 방금 하던 직장의 일군인 조영철동무의 말이 되새겨지고있었다.

《모든 호기가 70일전투때처럼 잘 나가고있으니 얼마나 기쁜 일이요. 그 기세를 늦추면 안되겠소.》

얼마후 조작공들의 일터에 들어서던 그는 발걸음을 멈추었다. 타빈조작공 안정국, 보이라조작공 김철기동무들이 조작반앞에 서서 계기들을 감시하고있었던것이다. 한걸음 앞서 그곳으로 들어선 작업반장 김문철동무가 김철기동무더러 몸이 불편한데 의자에 앉아 계기들을 감시해도 되지 않느냐고 묻자 그는 잠시라도 긴장이 풀릴가봐 그런다고 했다. 가슴이 뭉클했다. 조작반의 모든 계기들은 정상이였다. 하지만 그들은 하늘의 별들도 조을고있는 새벽에 누가 보진말진 순결한 량심으로 자기의 초소를 굳건히 지켜가고있는것이였다. 불현듯 70일전투의 나날 불편한 몸을 내색하지 않고 일하는 김철기동무가 걱정되여 로동자들이 등을 떠밀 때 우리야 나라의 생명선을 지켜선 북창의 용사들이 아닌가, 심장이 뛰는 한 초소를 떠날수 없다고 말하던 그의 모습이 떠올랐다.

《어기가 비록 우리가 병사시절에 서있던 전호가는 아니여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맡겨주신 초소라고 생각하니 어째가 무겁군요.》

안정국동무의 말이였다. 그들은 모두 제대군인들이였다. 얼마나 미더운 로동자들인가, 잊을수 없는 150일전투의 나날 몸소 기업소를 찾아오시여 기업소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잘하여 만가동을 보장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운전공, 조작공들이 설비와 기대를 눈동자와 같이 애호하는 한편 기술규정,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심장에 새아박고 일하는 그들.

직장의 로동자들모두가 이렇게 200일전투의 하루하루를 보내고있다.

이들이 생산하는 한W한W의 전기, 그것은 바로 순간도 떨어져 살수 없는 경애하는 원수님께로 달리는 그들의 충정의 마음의 결정체였다.

뜨거운 그 마음이 그대로 전기가 되고 불빛이 되여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힘찬 돌격전이 벌어지는 곳마다에 거세찬 숨결을 부어주고있는것이 아닌가.

본사기자 현경철

우리는 만리마의 기수들이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방적종합직장 2정방직장 1작업반원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강령적과업들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며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야 합니다.》

얼마전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들을 그리는 마음을 안고 날에날마다 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는 방적종합직장 2정방직장 1작업반을 찾았다.

찰칵— 찰칵—

고르롭게 돌아가는 기대사이로 오고가는 정방공들의 모습이 보였다.

혁신자들을 찾아 떠난 우리의 취재길이 이곳으로 이어지게 된데는 지난 6월 23일현재 월계획을 넘쳐 수행한 이 작업반에 년간계획완수자들이 나날이 늘어나고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였기때문이였다.

《하지만 그것은 고정된 수자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작업반장 방철준동무는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것이였다.

언제인가 교대를 끝마치고 기대를 돌아보던 그는 어디선가 두런두런 들려오는 말소리를 듣게 되였다.

《난 언제면 다기대공이 될가요?》

《지금처럼 일하면 돼.》

《지금이야 만리마시대인데 … 잘 좀 도와주세요.》

《그래, 우리 다같이 만리마를 타자.》

들어온지 얼마 안되는 류경애동무와 박은실, 박영금동무들사이에 오가는 말이였다.

그 다음날부터 교대를 마친 후이면 의례히 작업반에서는 오랜 기능공들이 나이린 기능공들에게 기대들의 작용원리와 기대를 다루는 방법, 기대고장의 원인과 그것을 퇴치하는 방법 등을 떠벌여주는 바람이 일었다.

이런 나날속에 류경애동무뿐 아니라 많은 동무들의 기능이 하루가 다르게 높아가고있다고 방철준동무는 자랑스럽게 말하였다.

지난 총정의 70일전투기간에 년간계획을 완수한 양금주, 리명금동무들의 뒤를 이어 200일전투기간에 류영숙, 리금복, 황설경동무들이 년간계획완수자가 되여 작업반의 영예를 떨치였다.

《이들의 모범을 본받아 작업반의 모든 동무들이 년간계획완수자가 될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넘쳐있었다.

지금으로부터 7년전 7월의 그날 찌는듯 한 삼복의 무더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친히 공장에 찾아오시여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시며 새로운 비약의 나래를 달아주시던 위대한 장군님,

그날 그이께서는 우리 인민들에게 더 좋고 더 많은 옷감을 보내주기 위해서는 공장의 로동계급이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높이 발휘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모든 로동자들이 자기 옷감을 짜는 심정으로 천생산에 지혜와 열정을 쌍그리 바쳐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날의 그 당부를 가슴에 새겨안고 분분초초를 아껴가며 일하는 그들이 모두가 년간계획완수자가 되리라는것을 우리는 믿어의심치 않았다.

우리 인민들을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게 내세우기 위하여 인민사랑의 길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만을 드리고싶은 불타는 마음을 안고 사는 그들이였다.

동무는 천리마를 탔는가라는 물음을 제기하며 기적과 위훈을 땔친 전세대들의 투쟁정신, 투쟁기풍을 이어받아 동무는 만리마를 탔는가라는 물음에 떳떳이 대답할수 있게 삶의 순간순간을 빛내여가는 이들이야말로 우리 당이 바라는 만리마기수가 아니랴.

그들은 자기들이 짧는 실 한오리한오리가 그대로 질풍같이 내달리는 만리마의 갈기가 되고 자기들이 돌리는 정방기의 동음이 그대로 만리마의 세찬 발구름소리가 되기를 바라고있었다.

만리마시대의 벅찬 숨결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어가고있는 그들의 혁신적성과속에 당정책관철의 본보기공장의 영예도 빛나는것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그들이 200일전투에서 영예로운 승리자, 만리마의 기수가 되리라는것을 굳게 믿으며 공장을 떠났다.

신 철

백두산으로 달리는 마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백두산에 오르면 누구나 혁명적각오가 굳세여지고 혁명할 결심이 더욱 확고해집니다. 조선사람은 누구나 백두산에 올라가보아야 합니다.》

혁명의 성산 백두산으로 온 나라 인민의 마음이 끝없이 달려오고있다. 우리 시대의 혁명가라면 누구나 백두산을 알아야 하며 백두의 혁명정신을 따라배워야 한다는 고귀한 진리를 가슴에 새긴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백두산에 올라 심신을 굳게 다지고있다.

그들중에는 평양시 모란봉구역 인흥1동 68인민반에 사는 리성옥녀성과 그의 아들인 평양제1중학교 리하경학생도 있다.

리성옥녀성의 가정에는 남편인 조선인민군 군판 리정철동무가 학생시절에 어버이수령님께 붉은넥타이를 매여드리는 모습을 찍은 사진문헌이 정중히 모셔져있다. 위대한 수령님께 리정철동무가 삼가 축원의 인사를 올리고 붉은넥타이를 매여드리던 그날의 사진문헌은 두 아들을 키우는 리성옥녀성의 가정에서 귀중한 가보였고 자랑이였다.

그러던 어느날 평양제1중학교 학생인 맏아들 리하경이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어머니, 〈가리라 백두산으로〉 노래를 들을 때면 내 마음은 백두산에 가있어요. 나도 백두산에 가고싶어요.》

리성옥녀성의 생각이 깊어졌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이 깃든 백두산!

위대한 수령님들의 거룩한 발자취가 력력히 어려있는 백두산에 가고싶어하는 아들의 절절한 심정을 들은 리성옥녀성의 마음도 백두산으로 끝없이 달리였다.

리성옥녀성의 가정에서는 백두산밀영고향집과 무산지구전투승리기념탑,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 신파혁명사적지에 수많은 관리도구들을 마련하여 보내주었다.

그러던 어느날 맏아들이 또다시 어머니의 심금을 울려주었다.

《어머니, 지금 온 나라의 청년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호소를 받들고 백두산지구 건설장으로 달려간대요.》

리성옥녀성의 가슴속에 격정의 파도가 일었다.

《그래, 우리 함께 백두산으로 가자.》

어머니는 아들의 가슴속에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심어줄 결심을 안고 백두산으로 향하였다.

천수백리길을 달려 삼지연군에 도착한 이들은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올랐다.

이른새벽 성산에 올라 장쾌하게 떠오르는 해돋이를 바라보며 어머니는 아들에게 이야기하였다.

《언제나 백두산을 안고 살자. 그러면 이 세상에 못해낼 일이 없단다.》

리성옥동무는 백두산에서 시작된 주체혁명위업을 굳건히 받들어가는 성스러운 길에 온 가정의 순결한 넋을 다 바치리라 굳게 다짐하였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막내아들 리일경도 백두산에 꼭 데리고 와야 하겠다고 결심하였다.

어머니와 아들은 백두산기슭에 자기들의 삶의 자욱을 남기고싶었다. 그래서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 대원들을 만나 그들의 로력적성과를 고무해주고 성의껏 마련한 지원물자를 넘겨주었다.

그리고 백두산이 바라보이는 삼지연읍의 명기슭에 무그루의 이깔나무를 심었다.

어머니와 아들은 두그루의 이깔나무에 우리 당만을 굳게 믿고 따르려는 충정의 마음을 담고싶었다.

부식토를 뿌리밑에 두툼히 깔고 나무를 심고 샘물을 부어주는 이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푸름을 자랑하며 꼿꼿이 자라는 백두산의 이깔처럼 어머니조국을 길이 받들어갈 불타는 맹세가 끓고있었다.

특파기자 전철주

신념으로 걷는 길

고원장공장 황은희, 조철룡동무에 대한 이야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그 어떤 난관과 시련앞에서도 주저하거나 동요하지 않고 참된 애국의 한길을 걷는 사람, 조국과 인민이 맡겨준 혁명과업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제때에 성실히 수행하는 사람이 진짜애국자입니다.》

전등불을 낮추 드리운 크지 않은 실험실에 한 녀성이 그린듯 앉아있었다. 세소한 몸, 마디가 불거진 손, 피말이 선 눈…

그가 바로 고원장공장 기술준비실 실장 황은희동무였다.

갖가지 실험기구며 실험일지를 더듬던 그의 눈길이 또다시 한장의 편지에 가 멎었다.

뒤이어 그의 입에서 가느다란 한숨이 새여나왔다. …

그날은 황은희동무가 장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지 몇해가 지난 어느 여름날이였다.

《동무들은 벌써 발명권을 딴다는데…》 이렇게 말하며 애꿎은 편지만 만지작거리는 안해를 바라보는 남편인 조철룡동무의 안색은 어두웠다.

《내 언제부터 하자던 말인데 … 신념이 없이는 결코 먼길을 갈수 없소. 조국을 위해 한생을 바칠 각오를 가지는게 중요하지.》

황은희동무는 조용히 남편의 말을 되뇌였다. 평범한 영예군인의 딸을 대학으로 불러주었다고 그리도 기뻐하며 온 가족이 모인 앞에서 아버지가 하던 말도 바로 그것이였다. 한생을 고마운 당을 위해, 조국을 위해…

조국을 위해 청춘도 가정도 지어 목숨까지도 서슴없이 바친 과학자, 기술자들은 또 얼마나 많은가.

그무렵 황은희동무는 어느 한 군의 기초식품공장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질좋은 토장을 생산하고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였다. 한말음에 달려가고싶었지만 선뜻 용단을 내릴수 없었다.

조철룡동무는 그러는 안해의 심정을 잘 알고있었다.

《걱정말고 해나오. 이제 우리 아이들이 크면 그때 다 이야기해주기오. 사실 우리 애들이야 지금껏 학아소와 유치원에서 키웠지.》

연구사업을 위해 천여리 먼길을 달려온 황은희동무에게 그곳 일군들은 필요한 온갖 조건을 다 보장해주었다. 특히 공장의 생산과 공정의 기술개건을 위해 자기의 피타는 땀과 지혜와 열정이 깃들어있는 연구자료들을 서슴없이 넘겨준 국가과학원의 한 연구사의 소행은 그에게 우리 시대 과학자들의 숭고한 정신세계와 인생관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하였다.

며칠후 출장지에서 돌아온 황은희동무는 곧장 실험실로 달려갔다. 서둘러 실험실로 들어서던 그는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섰다. 조철룡동무가 자기가 출장을 떠나기 전에 하던 실험을 계속하고있는것이 아닌가.

그날 그들부부는 오랜만에 함께 퇴근길에 올랐다.

《여보, 대학시절 첫 강의가 생각나세요? 그때 선생님은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를 우리들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주셨지요.》

하늘중천 솟은 달을 한동안 바라보던 황은희동무의 입에서 조선사람에게는 간장과 된장이 없어서는 안된다고 하신 어버이수령님의 교시가 또박또박 흘러나왔다.

조철룡동무가 웃깃을 여미며 목소리를 합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수천년동안 내려오는 조선사람들의 식생활에서 장은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것으로 되고있다고 하셨지.》

황은희동무는 확신에 넘친 어조로 이렇게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중요하다고 하신 장인데 무슨 일이 있어도 훌륭하게 만들어내야 해요. 이건 의무이기 전에 량심이예요.》

그것은 당의 품속에서 자라난 한 기술자의 심장에서 우러나오는 드팀없는 신념의 목소리였다.

그로부터 얼마후 황은희동무는 마침내 조선토장의 고유한 맛을 살릴수 있는 연구에서 성공하였고 전국적인 과학기술축전에 참가하여 우승의 영예를 지녀였다.

황은희동무를 잘 알고있는 한 기술자가 여러차례나 축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있는 그에게 학위론문을 쓸것을 권고하였을 때였다.

《우리 군은 물론 온 나라 인민이 고원장을 알고 그것을 맛나게 들 때, 그때서 우리 장군님께서 기뻐하실 때 론문을 쓰렵니다.》

황은희동무의 소원은 끝내 이루어지고야말았다. 어느 한 인민군부대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고원장공장에서 생산한 된장을 보시고 향기롭고 색갈도 좋다고, 맛도 좋을것이라고 하시면서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그날 군당위원회 책임일군을 비롯한 온 군이 황은희, 조철룡동무들을 영웅처럼 떠받들었다.

…

군안의 식료품상점들을 돌며 장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를 알아보고 목소리를 듣는것은 황은희, 조철룡동무들의 혼식일의 첫 일과이다.

얼마전에도 그들은 아침일찍 한 식료품상점을 찾아갔다.

기초식품매대앞은 주부들로 붐비고있었다. 황은희동무는 한 녀성에게 장맛이 어떤가고 물었다.

《좋아요.》

《그래요. 난 원래 매주를 쑤군 했는데 장공장 장맛이 이렇게 좋은데야…》

옆에 있던 녀성들도 맞장구를 쳤다.

천정에 아름답게 형상된 해바라기, 여러가지 우아한 색갈로 장식된 의자들, 실로 함숙의 모든것이 우리를 동심세계에 잠기게 하였다.

학생들이 병이 날세라 제때에 치료를 해주는 의무실과 온갖 조건이 갖추어진 학습실을 돌아보고 나서는데 얼서너살 돼보이는 한 남학생이 호실문을 걸고 열쇠를 마지주머니에 넣는것이 눈에 보였다.

우리가 그 학생에게 열쇠를 왜 맡기지 않고 주머니에 넣는가고 물었더니 그는 《이 열쇠는 우리 집열쇠나 같습니다. 이건 청진에 있는 우리 집열쇠이고 이것은 평양에 있는 우리 집열쇠입니다.》라고 하면서 열쇠들을 가리키며 자랑스레 말하는것이였다.

정말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함숙이 평양의 우리 집으로 소중히 자리잡고있었다.

우리는 생활교양원 리금주동무의 안내로 어느 한 호실에 들어가보게 되였다.

처음 며칠동안은 아이들이 너무나도 희한하고 꿈만 같아 흔한 시간도 미루고 함숙의 여기저기를 돌아보았고 아담하고 깨끗한 호실안에 선뜻 들어서기 저어됐다는 말을 웃음속에 들으며 포근한 이불들이 정돈되여있는 침대를 들러보던 우리는 책상우에 놓여있는 학습장에 눈길을 돌리게 되였다. 그 학습장의 첫 페지에는 뜻밖에 이런 글이 씌여져있었다.

《궁전에서의 꿈같은 나날을 잊지 말고 앞날의 체육명수로 자라나거라. …식당어머니로부터》

우리는 그 주인공이 료리사 홍순옥동무라는 말을 듣고 식당으로 발걸음을 옮기였다.

대중식사칸과 특별히 꾸려진 생일식사칸을 돌아보고 주방칸에 들어가니 저녁식사에 오르게 될 불고기를 손질하느라 여념이 없는 료리사들의 숙련된 칼도마소리가 정답게 들려왔다.

홍순옥동무는 오랜 세월 료리사를 해왔지만 지금처럼 자기 직업을 보람있고 영예롭게 여긴적은 없었다고 하며 아이들이 식사시간이 아닌데도 일부러 식당에 찾아와 인사를 하군 한다고, 그래서 며칠동안 친숙해진 한 학생의 생일날에 자기의 당부가 담긴 학습장을 기념으로 준것이라고 그 사연을 말해주었다.

정말 함숙의 어디를 돌아보아도 아이들의 행복한 생활이 펼쳐져있었고 세상에 다시없을 어버이사랑이 흘러넘치고있었다.

우리와 만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청소년과외교양지도국 처장 리응철동무는 말하였다.

그 말을 듣고있던 조철룡동무의 입에서 불쑥 이런 말이 튀여나왔다.

《아무렴 집에서 담근것만이야 하겠소?》

그러자 숱한 성난 시선들이 조철룡동무에게 총알처럼 날아갔다.

《아니, 대체 우리 장을 맛이나 보구 그런 소릴 해요? 그리구 상점에서 맛좋은 장을 판매하니 녀성들이 얼마나 헐한지 알기나 해요?》

뭇녀인들의 공격이였지만 조철룡, 황은희동무들의 마음은 기뻤다.

인민의 행복을 위해 한평생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뜻을 꽃피우는데 조금이나마 이바지할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행복과 기쁨이 어디 있으랴.

이것은 과학자, 기술자들만이 아닌 온 나라 인민들의 지향이고 신념이다. 그 신념이 평범한 현장기사뿐아니라 로동자와 농민도, 농촌학교의 이름없던 교원도 발명가로 자랑떨치게 하는것이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리경일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외국손님들과 해외동포들 경모의 정 표시

【평양 7월 4일발 조선중앙통신】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4일 웰남로동총련맹대표단과 재일조선청년학생대표단을 비롯한 외국손님들과 해외동포들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손님들은 나라와 민족의 륭성번영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치시였으며 인류자주위업실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담아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마음은 언제나 병사들곁에

강동군 효덕고급중학교 교장 윤영옥동무와 교직원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금 우리 인민은 선군정치를 높이 받들고 인민군대를 친혈육과 같이 사랑하고 진심으로 도와주고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여년전 학교교장으로 사업하게 된 윤영옥동무가 교원들의 교수능력과 학생들의 학과실력을 높이는 문제와 함께 관심을 돌린것이 있다. 원군사업을 통하여 모든 교직원들과 학생들의 가슴속에 우리 당의 선군령도를 량심과 의리로 받드는 참된 애국심을 깊이 심어주고 그들을 수령결사옹위정신, 조국결사수호정신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시키는것이였다.

윤영옥동무는 교직원들의 모임을 열고 진지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지난 시기 학교의 학생들과 학부형들속에서 발휘된 긍정적인 소행들과 조국보위초소에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병사답게 군무생활과 전투정치훈련에서 모범을 보여 모교의 영예를 떨치고있는 졸업생들의 위훈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널리 소개선전하였다.

교정에 원군열의가 차넘치도록 하는데서 자기의 위치와 임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그는 가족들과 함께 집짐승을 기를것을 결심하였다. 전쟁로병인 그의 어머니도 딸의 일을 적극 도와나섰다.

교장사업을 하면서 많은 짐짐승을 기른다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였다. 힘겨울 때마다 윤영옥동무는 어버이수령님을 몸가까이 모시고 사업하면서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총정의 한길만을 걸은 아버지의 마지막당부를 생각했다.

《신념이 없인 먼길을 가지 못한다. 오직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만을 굳게 믿고 따르며 전사의 본분과 의리를 다하겠다는 신념이 굳건할 때 인생의 승리자가 될수 있다는것을 뼈와 살처럼 새겨야 한다.》

윤영옥동무는 집짐승우리들을 더 크게 늘구었다. 딸의 장래를 생각하며 어머니가 모아두었던 자금으로 많은 짐짐승을 확보했다. 그렇게 기른 짐짐승들을 군인들에게 보내주던 날 그의 눈에서는 기쁨의 눈물이 솟구쳤다.

눈비오는 전호에서 조국의 안전을 지켜 모든것을 바쳐가는 병사들을 생각하며 뜨거운 진정을 아낌없이 고여가는 윤영옥동무의 모범을 따라 학교의 교직원들도 분발해나섰다.

박명옥, 강남철, 김명덕, 최혜심동무를 비롯한 교직원들은 전군절과 여러 계기들마다 많은 원호물자들과 위문편지들을 군인들에게 보내주었다.

이런 나날속에 학생들은 선군혁명의 믿음직한 기둥감들로 억세게 준비해나갔다.

오늘도 윤영옥동무와 교직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선군혁명령도를 신념과 의리로 받들어갈 한마음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원군사업에 애국의 마음을 다 바쳐가고있다.

본사기자

웰남로동총련맹대표단 도착

웰만 응앙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웰남로동총련맹대표단이 4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관계부문 일군과 주조 웰남사회주의공화국대사관 성원이 맞이하였다.

재일조선청년학생대표단 도착

리광일 재일본조선청년동맹 중앙상임위원회 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조선청년학생대표단이 4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행복이 넘치는 사랑의 보금자리

만경대학생소년궁전합숙을 찾아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과 인민은 학생청소년들을 끝없이 사랑하며 귀중히 여깁니다.》

며칠전 우리는 만경대학생소년궁전합숙 지배인 김정훈동무의 전화를 받게 되였다.

사연인즉 제42차 정일봉상 전국청소년학생체육경기대회(학생소년궁전, 학생소년회관부문)가 세상에 놀도 없는 아이들의 멋쟁이궁전에서 처음으로 진행되고있는데 여기에 참가한 청소년학생들과 지도교원들의 반영이 대단하다는것이였다.

그가 전하는 가지가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당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속에 어제는 만경대소년단야영소에서, 오늘은 만경대학생소년궁전에서 아니 온 나라 이르는 곳마다에서 행복의 이야기가 끝없이 꽃펴나고있구나 하는 생각에 우리의 가슴은 뭉클 젖어들었다.

이렇게 되여 우리는 취재길에 오르게 되였다.

우리가 만경대학생소년궁전합숙에 도착한것은 학생들이 오후경기에 참가하기 위해 운동복들을 차려입고 합숙을 나서던 때였다.

우리는 한 남학생에게 열쇠를 왜 맡기지 않고 주머니에 넣는가고 물었더니 그는 《이 열쇠는 우리 집열쇠나 같습니다. 이건 청진에 있는 우리 집열쇠이고 이것은 평양에 있는 우리 집열쇠입니다.》라고 하면서 열쇠들을 가리키며 자랑스레 말하는것이였다.

정말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합숙이 평양의 우리 집으로 소중히 자리잡고있었다.

우리는 생활교양원 리금주동무의 안내로 어느 한 호실에 들어가보게 되였다.

처음 며칠동안은 아이들이 너무나도 희한하고 꿈만 같아 흔한 시간도 미루고 합숙의 여기저기를 돌아보았고 아담하고 깨끗한 호실안에 선뜻 들어서기 저어됐다는 말을 웃음속에 들으며 포근한 이불들이 정돈되여있는 침대를 들러보던 우리는 책상우에 놓여있는 학습장에 눈길을 돌리게 되였다. 그 학습장의 첫 페지에는 뜻밖에 이런 글이 씌여져있었다.

《궁전에서의 꿈같은 나날을 잊지 말고 앞날의 체육명수로 자라나거라. …식당어머니로부터》

우리는 그 주인공이 료리사 홍순옥동무라는 말을 듣고 식당으로 발걸음을 옮기였다.

대중식사칸과 특별히 꾸려진 생일식사칸을 돌아보고 주방칸에 들어가니 저녁식사에 오르게 될 불고기를 손질하느라 여념이 없는 료리사들의 숙련된 칼도마소리가 정답게 들려왔다.

홍순옥동무는 오랜 세월 료리사를 해왔지만 지금처럼 자기 직업을 보람있고 영예롭게 여긴적은 없었다고 하며 아이들이 식사시간이 아닌데도 일부러 식당에 찾아와 인사를 하군 한다고, 그래서 며칠동안 친숙해진 한 학생의 생일날에 자기의 당부가 담긴 학습장을 기념으로 준것이라고 그 사연을 말해주었다.

정말 합숙의 어디를 돌아보아도 아이들의 행복한 생활이 펼쳐져있었고 세상에 다시없을 어버이사랑이 흘러넘치고있었다.

우리와 만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청소년과외교양지도국 처장 리응철동무는 말하였다.

《해마다 진행되는 경기이지만 올해에는 새로 개건된 만경대학생소년궁전에서 진행되는것으로 하여 참으로 의의가 깊다고 하면서 청소년학생들이 경기에 앞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을 폐부로 느끼며 앞날의 체육명수가 될 결심을 다지였다고, 바로 이것이 이번 경기대회의 제일 큰 성과라고 이야기하였다.

우리는 일군들의 바래움속에 합숙을 나서서 화려한 불장식으로 아름다운 궁전의 자태를 오래도록 바라보며 생각하였다.

앞날의 체육명수로, 미래의 역군으로 자라날 우리 학생들의 희망은 바로 여기 만경대학생소년궁전과 더불어 더욱 활짝 꽃펴나리라는것을, 우리 당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속에 이 땅우에 희한한 행복의 이야기들이 끝없이 펼쳐지게 될것이라는것을.

강효심

남조선을 현대판노예사회로 전락시킨 청와대악녀의 만고죄악

박근혜역도가 극도의 반동보수정치, 살인적인 로동악정으로 온 남녘땅을 사람 못살 생지옥, 현대판노예사회로 만든 죄악에 대해 반성할 대신 반역정책을 계속 강행하고있다.

노예제도수립을 위한 악법조작책동

로동의 권리는 인간의 가장 초보적인 권리이다.

근로자들이 자기의 지향과 로동능력에 따라 마음껏 일하고 창조한 부에 따라 생활을 향유할수 있는 사회제도와 인민적인 로동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인민대중의 참다운 생활이 보장될수 없다.

박근혜역도의 죄악중에서도 가장 큰 죄악은 무수한 로동악법조작으로 근로대중을 권력과 자본의 사슬에 결박된 노예로 만든것이다.

《로동개혁5대법안》조작책동이 그 대표적이다.

《로동개혁5대법안》은 1%밖에 안되는 재벌들에게는 특혜를 주고 99%의 절대다수 평범한 근로대중은 자본의 노예로 만들것을 목적으로 한 악법이다.

《로동개혁5대법안》을 구성하는 법들의 내용을 통해 그것을 잘 알수 있다.

《근로기준법》은 기업주가 부당한 리유를 내대고 로동자들의 임금을 대폭 삭감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로동시간을 연장하고도 그에 해당한 수당금을 잘라먹게 만들어놓았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은 비정규직로동자들의 고용기간을 2년으로부터 4년으로 늘임으로써 그들에게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기회를 박탈하는 악법이다.

이 법은 2년 고용기간이 끝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게 한 현행《비정규직법》을 개악한것으로서 비정규직로동자들에게 일자리를 해주지 않겠으면 2년을 더 비정규직으로 있으라고 강요하고있다.

한줌도 안되는 극소수의 재벌들을 위해 광범한 근로대중의 인권을 무참히 유린하고 그들을 더욱 비참한 처지에 몰아넣은 괴뢰역도의 죄악은 전대미문의 반인권적만행으로서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정규직로동자들도 언제 비정규직으로 굴러떨어질지 모를 불안에 떨고있는 판에 비정규직로동자들이 정규직으로 된다는것은 하늘의 별따기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도 로동자들의 리익을 가로막기는 마찬가지이다.

박근혜역도는 기업주들이 로동자들을 마음대로 부려먹고 마음대로 해고시킬수 있게 공간을 조성하는 제도적장치들도 만들어냈다.

올해초 역적패당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일반해고, 취업규칙변경지침(일명 랑대지침)은 악랄하기 이를데 없다.

한마디로 말하여 역도가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의 너울을 씌운 로동악법들과 제도적장치들은 로동자들의 피땀을 짱그리 착취하여 재벌들의 배를 불리어주기 위한것이다.

하기에 남조선인민들은 박근혜역적패당의 《로동개혁5대법안》을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비정규직확대를 노린것이라고 강력히 반대해나서면서 그것을 근로자들을 겨냥한 살인적인 폭압정치의 련속으로, 자그마한 로동권리마저 무참히 짓밟는 불법무도한 《법》으로 규탄하고있다.

재미동포인터네트신문 《민족통신》에 투고한 글에서 한 해외동포는 《박근혜정부가 (창조경제)를 운운하지만 창조의 주인들에게 희망은커녕 절망만 안겨주고있다.》고 단죄하였다.

괴뢰역적패당은 독단과 전횡으로 악법들을 《국회》에서 기어이 통과시켜 근로자들의 삶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려는 인권유린만행을 서슴지 않고있다.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 재벌들은 물론 시장, 군수, 구청장들까지 개혁추진에 총동원되라고 들볶아댔다. 지어 역도가 직접 《민생구하기림법촉구서명운동》이라는데 참가하여 서명하며 추태를 부렸다.

괴뢰패당은 로동, 금융, 교육, 공공부문에 대한 4대개혁의 핵심인 《로동개혁5대법안》이 성사되면 남조선경제가 활성화되고 심각한 실업사태를 해결할수 있는듯이 떠들고있다.

그러나 철두철미 《정부》와 기업주들의 리익만을 중시하고 인민들의 생존권을 여지없이 박탈하는 악법들의 반인민적정체를 절대로 가리울수 없다.

기업주들의 배만 불리여준 친재벌정책

박근혜역도는 《기업들에 힘을 실어주는》 친재벌정책을 강행함으로써 남조선에서 빈부격차를 그 어느때보다 더욱 심화시켰다.

박근혜는 《대통령》벼거지를 쓴지 50일도 못되여 《경제민주화》공약을 떡지화해버리고 《대기업이 투자를 못하게 규제하는것이 경제민주화가 아니다.》고 발딱 뒤집으면서 《새누리당》을 내몰아 그와 관련한 법안통과를 가로막아나섰다.

철도, 전력, 의료 등 공공부문의 민영화는 본질에 있어서 자본이 진출하지 못하고있는 공공부문의 규제를 풀어서 재벌대기업들에 새로운 먹이감을 안겨주는 극히 반동적인 친재벌정책, 《로동쿠데타》이다.

박근혜역도는 《규제는 암》이라는 망발을 마구 줴치면서 재벌들의 리익에 방해로 되는 규제조치들을 대대적으로 완화하였으며 기업주들에게 제 마음대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확대할 권한을 통채로 안겨주었다.

총인건비의 증액없이 공짜로동을 강요하는 《임금피크제》, 고용유연화라는 미명하에 내놓은 최악의 《시간제일자리제도》와 같은 반인민적로동제도를 도입하여 로동자들의 몇푼 안되는 돈마저 짱그리 털어 재벌들의 주머니를 채워주려 하고있다.

《소득세법》을 비롯하여 재벌들의 세금을 면제시켜주고 특혜를 주는 악법들을 제정 및 개정하였다.

남조선은 이미전부터 《재벌공화국》으로 세계에 알려져있다. 그것이 박근혜《정권》시기에 이르러 더욱 놀후해져 극소수 대재벌들에게 경제적부가 집중되고있다.

반면에 중소기업들이 무더기로 파산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대량해고되여 거리를 방황하고있으며 중산층이 빈민층으로 몰락하고있다.

외세에 통채로 내맡긴 식민지경제

수출주도형의 남조선경제는 자립성이란 꼬물만큼도 찾아볼수 없으며 인민들의 운명도 노예의 처지나 다를바 없다.

식민지 남조선에서 경제는 철저히 외세에 의해 좌우지된다.

특히 미국이 남조선주식시장의 30%, 대기업들과 은행들의 경우에는 주식의 50%이상을 보유하고있으며 주식배당금명목만으로도 해마다 수십억US$의 리득금을 걷어가고있다.

현실이 이러하니 박근혜역도는 남조선경제를 통채로 대국들의 도박장으로 내맡기려 하고있다.

남조선 각계가 《제2의 을사5조약》으로 배격하는 미국남조선《자유무역협정》의 원활한 리행을 떠들면서 알곡시장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던 쌀시장마저 통채로 개방하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세계 여러나라들을 싸다니며 《자유무역협정》체결에 열을 올리였다.

미국주도의 환태평양경제련대협정에 가입하기 위해 지난해 역도는 미국행각시에 가입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하였다.

미국남조선《자유무역협정》으로 미국경제에 완전히 눌리워있는 남조선이 환태평양경제련대협정에 가입하는 경우 일본경제로부터도 강한 압박을 받게 된다.

년간 대일무역적자가 수백억US$에 달하고있는 남조선이 미국의 압력과 강박에 못이겨 《협정》에 가입하면 남조선경제가 파국에 처하게 될것이다.

현실적으로 박근혜년의 굴욕적인 《자유무역협정》체결놀음으로 남조선은 무역품종의 83%가 경쟁에서 밀려나고 수출기업의 50%이상이 피해를 입고있으며 주변나라들의 경제악화로 남조선경제의 명줄인 수출액은 계속 줄어들어 올해 2월에는 지난해 2월에 비해 12.2%나 낮아졌다.

민족성과 정치적주권이라고는 전혀 없는 박근혜역도의 사대매국적행위로 하여 앞으로 환태평양경제련대협정과 지역내포괄적경제련대협정을 비롯한 굴욕협정에 남조선경제가 완전히 지배되는 경우 남조선은 불피코 외세의 상품시장으로 더욱 굴러떨어지게 될것이다.

철도의 민영화를 강행하려는 괴뢰패당의 책동도 역시 외국독점자본과 대판자본의 배를 불리어주고 남조선을 더욱더 식민지노예지로 만들려는데 기인된것이다.

남조선신문 《한겨레》는 한 만화에서 박근혜의 경제무능은 해염을 치는데서 전혀 무력한 인어의 몸통과 같다고 비난하였다.

갈수록 암담해지는 근로대중의 비참한 처지

사대매국적이고 반인민적인 악정에 의해 근로대중은 비참한 처지에서 헤매이고있다.

얼마전 《한국은행》이 발표한데 의하면 남조선주민 1인당 평균빚은 2만US$가 훨씬 넘었다.

실업자대렬이 날이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있다.

2013년에 350여만명이였던 실업자가 2014년에는 450여만명으로 늘어났으며 그중 취업을 완전히 포기한 사람은 무려 50여만명이나 된다.

하루 또는 몇개월정도 고용되여 일하며 얼마 안되는 임금을 받는 반실업자도 800만명에서 1 000만명으로 증가하였다.

극도의 절망과 좌절감으로 인한 자살자수는 세계최고를 기록하고있다.

일류기업이라고 하는 삼성전자의 하청로동자였던 최종범이 배가 고파 자결한 사실 하나에도 가혹한 노예로동에 시달리는 남조선로동자들의 비참한 모습이 그대로 비껴있다.

해외로 나간 남조선로동자들의 처지는 더 말할수 없는 지경이다.

오스트랄리아에서 쓰레기를 주어담는 일에 종사하던 23살 난 남조선처녀가 공원에서 머리타박상을 입고 숨진 상태로 나타났다. 외국의 한 식당에서 접습생으로 고역살이를 하였던 청년은 《최저임금도 못 받고 휴식일도 없이 하루 12시간이상 강제로동에 시달렸다.》, 《집에 갈 날만 세다가 돌아왔다.》고 증언하였다.

더욱 기막힌것은 부모가 비정규직이면 자녀들도 비정규직으로 되여야 하는 《현대판신분제도》가 횡행하고있는것이다.

남조선언론들이 남조선사회는 부모의 신분이 천민이면 자식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천민이 될수밖에 없었던 과거 노예사회, 봉건사회를 닮아가고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평한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남조선에서 《온전한 직업》을 가졌다고 하는 정규직로동자들도 언제 실업자로 될지 몰라 불안과 공포에 떨고있다.

더우기 남조선에서 전체 인구의 27.3%를 차지하는 청년들의 실업문제가 심각한 사회정치적문제로 제기되고있다.

대학졸업생들의 취업률은 2014년 54.8%로서 해마다 계속 줄어들고있으며 겨우 일자리를 얻었다고 하는 청년들도 5명중 1명이 2년미만의 계약직로동자로서 잠재적인 실업자나 다름없다. 결국 대부분의 청년대학생들이 앞으로 직장에 나가서 갚기로 하고 빌린 학자금을 졸업후 몇년이 지나도록 갚지 못하여 1명당 걸머지고있는 빚이 평균 1만 5 000US$에 달하고있으며 해마다 6 000여명의 대학졸업생들이 최하층으로 굴러떨어지고있다. 청년실업률은 올해 3월 사상 최악을 기록하였다.

근로대중이 일하고싶어도 또 일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있어도 할수 없는 기막힌 곳이 바로 남조선이다.

일자리를 얻었다고 하는 근로자들도 초보적인 로동보호, 안전대책도 세워지지 않은 죽음의 고역장들에서 일하고있다.

남조선의 공장들과 기업소들은 《로동자들의 무덤》, 《최악의 살인기업 1위》로 악명떨치고있다. 오죽했으면 언론들이 《(멀악한 로동환경)이라는 표현구마저 사치스러운 죽음의 일터》라고 개탄하였겠는가.

삼성반도체공장의 유독성가스루출사고, 현대중공업 울산공장화재폭발사고 등 특대형사고로 수백명의 로동자들이 죽거나 부상당하였다.

산업재해사망자수는 다른 주요자본주의나라들에 비해 무려 2-4배나 많으며 남조선은 국제적으로 로동안전조건이 제일 열악한 곳으로 오명떨치고있다.

남조선의 현 실태에 대해 신문 《미디어오늘》은 《인간의 존엄과 자유와 평등을 빼앗긴 노예사회가 바로 남조선이다.》라고 폭로하였다.

근로자들의 정치적자유와 로동에서의 참다운 권리, 자본의 횡포를 마스기 위한 정의의 투쟁이 전개된 때로부터 한세기이상의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아직도 남조선에 현대판노예제도가 존재하고있다는것이야말로 력사의 수치이며 민족의 비극이다.

* *

무지막지한 경제말살책동과 외세의존으로 온 남조선땅을 세상에 둘도 없는 노예제도로 전락시키고 인민들의 고혈을 악착스럽게 짜내는 박근혜역도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분노는 극도에 달하고있다.

이번 괴뢰국회의원선거에서 남조선인민들이 박근혜역도와 《새누리당》에 대참패를 안긴것은 노예제도를 산생시킨 역적패당에 대한 증오와 울분, 반역의 무리를 력사의 심판대에 올려세우려는 불같은 의지의 분출이다.

《로동자들이 싸우지 않는다면 부패한 정권의 제물이 될것이다. 2천만 로동자여 투쟁하라!》, 《박근혜 퇴진!》, 《반역정권 타도!》, 이것이 자본의 철쇄를 마스고 현대판노예제도를 철폐하려는 남조선근로대중의 한결같은 웨침이다.

인민의 머리우에 군림한 파쑈폭군 박근혜역도의 파멸은 력사의 필연이다.

【조선중앙통신】

사무라이후예들은 어리석은 꿈을 꾸지 말라

일본반동들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재침선동을 매우 치졸하게 벌리고있다. 최근 《독도평유권》에 대한 남조선을 소학교학생들의 시험문제에까지 제시한 사실이 또다시 폭로되였다.

여기에는 학생들이 조선민족을 강점자로, 독도를 우리 민족에 의해 점령당한 일본령토로 인식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교활한 술책이 깔려있다.

섬나라족속들이 우리 민족의 고유한 령토인 독도에 대해 《령유권》을 운운하는것은 언어도단이다.

이러한 파렴치한 력사외곡책동은 자라나는 새 세대들속에 령토팽창야망과 복수주의감정을 불어넣어 또다시 조선에 대한 침략의 길로 내몰려는 사무라이후예들의 전쟁전주곡이라는데 그 위험성이 있다.

청소년들을 재침의 길에 내몰려는 일본반동들의 책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5년 일본 문부과학성은 내외의 규탄배격에도 불구하고 독도가 우리 민족에 의해 점거당한 일본땅이라는 력사교과서를 검정에서 통과시켰다. 2011년에는 교과서에 독도가 마치 그 누구에 의해 《불법점거》되여있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중,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해설서》라는것을 통해 교과서들에 《독도가 일본령토이며 불법점거되여 일본정부가 항의하고있다.》는 내용을 명기하도록 내리먹였다.

소학교교과서제작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해부터 일본 소학교 5, 6학년용 사회과독교과서들에 중학교에 실린 내용을 그대로 포함시켰다. 이번에 시험문제를 작성한 당사자자체도 교과서내용대로 냈을뿐이라고 뻗대였으며 그가 속한 출판사관계자는 《다께시마가 불법점거되여있다.》는 내용은 수험생에게 당연한 지식으로 되고있다고 공공연히 뇌까렸다.

지어 일본반동들은 독도에서 멸종된 동물을 등장시킨 동화책을 발간하고 그것으로 특강을 하며 강탈야망을 불어넣고있다.

독도강탈을 위한 어리석은 책동은 시마네현이 벌려놓군 하는 《다께시마의 날》행사놀음을 계기로 더욱 광란적으로 감행되고있다. 이 광대극은 오늘 일본의 주요언론들에 의해 전지역에 대대적으로 전해지고있다. 일부 우익반동들이 만들어 행사놀음이 벌어지는 구역에서만 팔아먹던 《독도술》, 《독도빵》이라는것을 이제는 현의 큰 시장에서까지 판매하고있다. 이것은 일본의 력사외곡책동이 어느 지경에 이르고있는가 하는것을 그대로 보여준다.

문제의 엄중성은 일본의 독도강탈책동이 력사외곡의 범위를 벗어나고있는데 있다. 일본반동들은 이미전에 독도에 대한 로골적인 무력강탈시도를 드러낸바 있다. 1990년대말 일본국회 중의원 안전보장위원회에서는 일본국민이 자기 나라 《령토》인 독도에 갈수 있는 자유가 저지, 배제당하고있는 형편에서 《그 배제하는 군대를 격파하여 외국군대의 〈침략상태〉를 배제하는것이 〈자위대〉의 임무》라는 호전적인 망발들이 서슴없이 튀여나왔다. 최근년간 일본방위성은 《방위백서》에 독도를 《일본령토》라고 명기하였다. 2012년도 《방위백서》에서 해상《자위대》 제3호위대군을 《다께시마 관할부대》로 지명하였다. 《자위대》는 비밀리에 독도상륙훈련을 진행하고있다.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섬을 점령하기 위한 륙상, 해상, 항공《자위대》의 사격훈련도 실시하였다. 일본은 항공《자위대》소속 정찰기를 독도상공가까이로 접근시키였는가 하면 해상보안청소속 순시선들을 파견하여 독도수역을 침범하게 하였다.

사무라이후예들은 독도를 무력으로 가로타고앉기 위한 범죄적계획들을 하나하나 실천에 옮기고있다.

일본《자위대》의 독도강탈책동은 위험계선을 넘어서고있다.

이러한 무모한 책동은 일본을 저들의 세계제패전략에 써먹으려는 미국의 지지비호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미국은 2011년에 조선동해를 《일본해》로 단독표기할데 대한 공식의견을 국제수로기구에 제출하였다. 남조선주재 미국대사관은 독도를 지워버리고 조선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조선지도를 홈페지에 올리고 사용하였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나 무지로부터 출발한것이 아니다. 미국무성의 홈페지에는 독도가 빠진 지도가, 미중앙정보국의 홈페지에는 조선동해를 《일본해》로, 독도를 일본의 섬으로 바꾸어 표기한 지도가 실렸다. 이것이 일본의 《독도령유권》, 《일본해》주장을 비호하기 위한 계획적인 술책이라는것은 두말할것 없다.

미국의 적극적인 비호밑에 오늘 일본반동들은 전범국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조선침략과 세계제패를 위한 침략전쟁에 뻐젓이 뛰여들수 있게 되였다.

일본반동들은 《집단적자위권》행사의 미명하에 어느때든지 미국에 추종하여 세계의 그 어느곳에든 무력을 파견할수 있게 되였다. 그 첫 대상이 다름아닌 우리 나라이다. 일본반동들은 재침구실을 마련하기 위해 《독도령유권》에 대한 남조선을 퍼뜨리고있는것이다. 미제의 새 조선전쟁도발책동과 그에 편승한 일본반동들의 재침책동으로 말미암아 조선반도에는 전쟁의 검은구름이 더욱 짙게 드리우고있다.

일본반동들이 재침열에 들떠 새 세대들에게 외곡된 력사를 주입시키며 령토강탈야망을 불어넣고있지만 그것은 헛된 망상이다.

령토강탈과 해외침략에 환장한자들은 남의 땅을 넘겨다보기 전에 현실을 령철하게 보아야 한다.

일본이 이 땅을 외세가 제멋대로 란도질하던 어제날의 수난의 대지로 착각하고 분별없이 날뛰다가는 자멸밖에 차례질것이 없다.

선군조선은 우리의 신성한 령토를 넘겨다보는 침략의 무리들을 단매에 족탕처버릴 막강한 국력을 과시하고있다.

우리 인민의 철천지원쑤, 백년숙적에 대한 우리 민족의 쌓이고쌓인 원한과 치솟는 적개심, 불타는 보복열기는 하늘끝에 닿았다.

만일 일본이 령토강탈책동에 계속 매달린다면 자비와 용서를 모르는 우리의 무자비한 타격에 섬나라 일본은 조선동해에 영원히 수장될것이다.

리 현 도

6.25-7.27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영국에서 반미시위 진행

6.25-7.27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영국의 진보정당, 단체들이 6월 25일 영국주재 미국대사관앞에서 반미시위를 벌리였다.

시위에는 영국신공산당,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 영국주체사상연구소조, 영국조선친선협회의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 위원장 더모트 하드슨은 시위에 앞서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미제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요람기에 압살하기 위해 침략전쟁을 도발한 때로부터 6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미제에 의하여 강요된 지난 조선전쟁은 력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가장 엄혹한 전쟁, 조선인민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준엄한 전쟁이였다.

미제는 최신무기로 무장한 저들의 침략무력과 남조선괴뢰군은 물론 15개 추종국가군대까지 조선전쟁에 총동원하였지만 대참패를 당하였다.

조선인민이 조국해방전쟁에서 미제를 타승할수 있은것은 전적으로 김일성주석의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탁월한 지략, 독창적인 군사전법과 세련된 령군술이 있었기때문이다.

전쟁의 포성이 멎은 때로부터 60여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조선반도에는 아직도 공고한 평화가 깃들지 못하고있으며 임의의 시각에 새 전쟁이 일어날 위험성이 때없이 조성되고있다.

남조선주둔 미군은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주되는 화근이다.

영국의 모든 진보세력들은 남조선에서 미군을 몰아내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보내야 할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각하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조선통일의 력사적위업을 반드시 이룩할것이다.

시위자들은 《미제는 남조선에서 물러가라!》, 《양키는 제 집으로 돌아가라!》, 《조선은 하나다!》 등의 구호들을 웨쳤으며 보행자들에게 미제가 조선전쟁시기 감행한 반인륜적범죄들을 폭로하는 선전물들을 나누어주었다.

도이췰란드단체 성명 발표

6.25-7.27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도이췰란드반제연단이 6월 27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조선전쟁시기 가장 야만적인 폭격과 포격으로 우리 조국강토를 재더미로 만들고 무고한 인민들을 마구 학살한 미제의 반인륜적범죄행위에 대하여 폭로하고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미국의 잔인성, 야수성은 세계전쟁사와 인류력사에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다. 오늘도 남조선을 강점하고있는 미국은 조선인민의 자주통일의 길을 가로막고 조선반도에서 새 전쟁을 일으키려고 책동하고있다.

인간증오사상에 물젖어 피비린 살륙만행을 감행하고있는 미국을 국제재판소에 끌어다놓고 너덜거렸는가 하면 괴뢰국무총리,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졸개들은 《합리적결정》이니 뭐니 하며 김해비행장확장을 《신공항건설》로 변신시켜보려고 갖은 추태를 부리고있다.

문제는 현 괴뢰보수당국이 그동안 김해비행장확장은 《불가능》한것이라고 반대해오다가 궁지에 빠진 집권자가 지나가면서 내뱉은 말 한마디에 놀라 그것이 《최선의 대안》이라도 되는듯이 우겨대고있는 점이다. 오죽하면 《새누리당》내에서마저 당국의 말뒤집기에 《어안이 벙벙하다.》는 개탄이 터져나오고있겠는가.

이것이 바로 권력야욕실현을 위해 지난 《대통령》선거당시 아무런 현실성도 없는 거짓공약을 왕고하고 제불장을 다 본 지금에 와서 그것을 서슴없이 뒤집으며 사회를 극도의 혼란속에 몰아넣은 괴뢰집권자가 빚어낸 아비규환의 남조선현실이다.

남조선인민들은 사기와 협잡의 명수인 박근혜를 비롯한 괴뢰집권세력의 정체를 똑똑히 꿰뚫어보고있으며 올해 4월의 《국회》의원선거에서처럼 다음기 《대통령》선거에서 민심을 기만우롱하는 가증스러운 반역무리를 단호히 심판할 의지를 벼리고있다.

본사기자 리 효 진

개성공업지구가동중단의 책임은 박근혜《정부》에 있다

남조선 입주기업 대표들 서울에서 집회

남조선의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 대표 200여명이 6월 28일 서울의 괴뢰정부청사앞에서 집회를 가지고 개성공업지구가 동중단에 따르는 피해를 보상할것을 괴뢰당국에 요구하였다.

그들은 《개성기업살리는 특별법을 제정하라!》, 《우리 자산 찍어간다! 방북을 허용하라!》 등의 구호를 웨치며 박근혜괴뢰의 동족대결정책을 규탄하였다.

그들은 대국민호소문을 통해 개성공업지구가동중단의 책임은 전적으로 박근혜《정부》에 있다고 하면서 이에 따르는 피해보상이 응당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종합지원대책》의 기만적정체에 대해 까밝히면서 그들은 재산피해의 100%를 지원해준다 해도 더이상 경영활동을 하기 힘든데 무슨 근거로 50%정도만을 지원금으로 책정하였는지 리해할수 없다고 비난하였다.

그들은 《정부》가 언론까지 동원하여 입주기업들에 엄청난 해택을 주는듯이 광고하지만 손실복구에 대해 언두도 내지 못하고있는 기업들에게는 황당할뿐이라고 개탄하였다.

이어 참가자들은 《정부》가 개성공업지구를 재가동시키고 입주기업들에 대한 피해를 보상할때까지 계속 집회를 벌릴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히스테리적발작을 조소

재미동포동부지역련합회 회장 리준무가 6월 23일 《미국은 유엔에서 설치지 말라》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하였다.

글은 북의 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 《화성-10》시험발사가 성공하자 미국과 추종세력이 또다시 히스테리적발작을 보이고있다고 비난하였다.

북을 제재한다고 조치를 취할때마다 북의 핵과 미싸일방어체계가 비상히 강화되는 결과만 가져왔다고 글은 지적하였다.

글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 북을 못살게 조일 때마다 북의 방어력은 더욱 강화, 발전될것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미국이 진정으로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바란다면 남조선에 점령군으로 배치한 미군과 핵무기를 포함한 각종 살인무기들을 지체없이 철거해야 한다.

그리고 신속히 북과의 회담을 진행하여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진정성있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 세상에 미국의 말을 믿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미국의 신용은 완전히 떨어진지 오래다.

미국은 또다시 6.25와 같은 침략전쟁을 획책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미국스스로 고백했듯이 쓰디쓴 패전이고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글은 계속하여 지금은 미국이 조용히 있어야 할 때라고 하면서 미국과 추종세력은 유엔에서 설치지 말라고 경고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공약파기명수의 파렴치한 행위

선거공약파기를 밥먹듯 하는것은 현 괴뢰집권자의 악습이다. 권력의 자리에 들어앉은 첫해에 벌써 《대통령》선거당시의 핵심공약인 《기초년금제도입》을 웨버려 위선자로 소문난 박근혜이다. 이번 식으로 그는 집권 6개월도 되기 전에 경제, 민생관련공약 200여개중 절반을 파기하거나 리행규모를 축소시켰다. 하기에 남조선에서 괴뢰집권자는 《대통령》이라기보다는 특등거짓말쟁이, 공약파기명수로 유명짜하다. 오죽하였으면 남조선에서 집권자를 동화 《삐노끼오》에서 나오는 거짓말쟁이인형 삐노끼오에 비유하여 《박삐노끼오》라고 하겠는가.

그런데 박근혜의 그 못된 악습이 다시금 일을 쳤다. 최근 남조선에서 《박근혜가 또 선거공약 깼다.》는 비난이 터져나오고있는데 그 원인은 역도가 지난 《대통령》선거당시 민심을 꼬드기며 들고나왔던 《동남권신공항건설계획》을 백지화한데 있다.

머칠전 남조선당국은 《동남권신공항》대신 김해비행장을 확장하기로 하였다는 결론을 발표하였다. 이렇게 되자 현 괴뢰집권자의 지지기반이라고 하는 지역에서마저 《신공항백지화》, 《대신》, 《실망》이라는 저주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있다.

원래 《동남권신공항건설계획》은 지난 2007년 이전 괴뢰집권자인 리명박역도가 《대통령》감투를 노리고 령남지방의 지지표를 긁어모을 타산밑에 내걸었던 공약중의 하나이다. 그 덕으로 적지 않은 표를 따내여 권력의 자리에 올라앉은 역도는 몇년후 《동남권신공항건설계획》이 경제적으로나 환경측면에서 《적합하지 않다.》는 구실을 내대고 계획을 걷어치웠다. 이로 하여 사회 각계의 거센 반발이 일어나자 황급해난 역도는 《대국민사과》라는것을 하지 않을수 없었다.

바로 그때 수많은 기자들앞에서 그 무슨 《원칙》과 《유감》을 떠들며 《민중과의 약속을 어겼다.》고 집권자를 공격해나선 보수정객이 있었다. 그가 바로 박근혜이다.

당시 박근혜는 리명박이 차버린 《동남권신공항건설계획》을 자기가 성사시키겠다고 장담하였으며 지난 《대통령》선거때에는 그것을 핵심공약의 하나로 들고나왔다. 이 위선자는 당시 부피두툼한 공약집이라는것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그 무슨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8대핵심정책》의 5번째 항목으로 《동남권신공항건설계획》을 포아박았다. 그리고 선거가 림박하자 대구와 부산을 비롯한 령남지방의 이곳저곳을 돌아치며 《신공항을 반드시 건설하겠다.》고 찰떡같은 약속을 늘어놓았다. 가관은 대구에 가서는 그 지역에 유리한 《신공항》을 건설하겠다고 약속하고 부산에 가면 《부산시민들이 바라는 신공항》을 건설한다고 요설을 늘어놓은것이다.

그때 벌써 그것이 심각한 지역갈등으로 번져지고 사회적혼란을 야기시켰다. 이렇게 되자 《새누리당》패거리들은 《박후보가 TK(대구, 경상북도)표와 PK(부산, 경상남도)표를 다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좀 애매한 표현으로 신공항건설을 약속해도 리해해달라.》고 변명하였다.

그런데 이번에 괴뢰집권자가 《동남권신공항건설계획》을 정식 포기함으로써 지난 《대통령》선거당시 《신공항건설》이니 뭐니 하며 민심을 꼬드긴것이 순수 청와대안방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요망스러운 민심기만놀음이라는것이 명백히 립증되였다. 입만 짜개지면 그 무슨 《원칙》과 《약속》을 구정물처럼 토해내던 괴뢰집권자이고보면 《동남권신공항건설계획》공약을 서슴없이 제버린 역도의 그 파렴치성은 리명박과는 대상도 안된다는것이 남조선여론의 일치한 평가이다.

남조선언론들에는 《령남지역의 민심이 초토화되였다.》, 《심각한 사회분렬을 초래한 〈정부〉와 여당》 등의 내용으로 된 비난기사들이 계속 실리고있다.

괴뢰집권자의 뻔뻔스러운 공약파기놀음에 대한 야당세력들의 비난도 거세지만 보수층내부의 반발도 간단치 않다. 부산시장은 집권자의 처사는 부산시민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울분을 터뜨렸다. 《새누리당》패거리들은 《동남권신공항》사태를 계기로 야당이 부산을 《점령》해버릴수 있다고 아우성치고있다. 이로 하여 민심을 기만우롱하며 사기와 협잡으로 권력의 자리를 차지한 남조선집권자는 안팎으로 궁지에 몰리게 되였다.

바빠맞은 괴뢰역도는 이번에는 교활하게 김해비행장확장을 《신공항건설》로 둔갑시키면서 그 광고에 집권세력을 총동원시켰다. 청와대대변인이라는자는 박근혜가 《공약을 파기한것이 아니》라느니, 《김해공항확장계획으로 약속을 지켰다.》느니 하고 괴뢰국무총리,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졸개들은 《합리적결정》이니 뭐니 하며 김해비행장확장을 《신공항건설》로 변신시켜보려고 갖은 추태를 부리고있다.

문제는 현 괴뢰보수당국이 그동안 김해비행장확장은 《불가능》한것이라고 반대해오다가 궁지에 빠진 집권자가 지나가면서 내뱉은 말 한마디에 놀라 그것이 《최선의 대안》이라도 되는듯이 우겨대고있는 점이다. 오죽하면 《새누리당》내에서마저 당국의 말뒤집기에 《어안이 벙벙하다.》는 개탄이 터져나오고있겠는가.

이것이 바로 권력야욕실현을 위해 지난 《대통령》선거당시 아무런 현실성도 없는 거짓공약을 왕고하고 제불장을 다 본 지금에 와서 그것을 서슴없이 뒤집으며 사회를 극도의 혼란속에 몰아넣은 괴뢰집권자가 빚어낸 아비규환의 남조선현실이다.

남조선인민들은 사기와 협잡의 명수인 박근혜를 비롯한 괴뢰집권세력의 정체를 똑똑히 꿰뚫어보고있으며 올해 4월의 《국회》의원선거에서처럼 다음기 《대통령》선거에서 민심을 기만우롱하는 가증스러운 반역무리를 단호히 심판할 의지를 벼리고있다.

본사기자 리 효 진

ㄱ-611078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등록 위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본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6528, 당생활부 370-4628, 사회주의교양부 372-36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